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해양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오 어 진

2012년 8월

# 제주 해양소설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윤

오 어 진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오어진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8월

# A Study of Jeju Maritime Novels

Oh, Eo-ji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방법과 범위 .....	8
II. 제주 해양소설의 체험 주체와 공간 인식 .....	15
1.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체험 주체 .....	15
1) ‘제주해녀’의 삶 .....	15
2) ‘보제기’의 삶 .....	22
2.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인식 .....	33
1) 공동체의식을 통한 생활 공간 .....	33
2) 무속을 통한 기원의 공간 .....	39
3) 문화의 창달·전수 공간 .....	43
III.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 .....	48
IV. 결론 .....	53
<참고문헌> .....	56
<Abstract> .....	59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바다<sup>1)</sup>를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삼은 문학작품은 매우 많다. 이는 바다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구 표면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이고 지구상 전체 물에서 바닷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인 점에서도 그것은 확인된다.

바다는 인간에게 흔히 “무한대의 동경과 끝없는 미지의 심연을 상징”<sup>2)</sup>한다. 수평선은 현실의 한계이면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깊이를 알 수 없는 해저는 공포와 불안, 위험 등을 각각 의미한다. 특히 문학작품 속에서 바다는 “유동하는 물, 공기 같은 무형적인 존재와 대지 같은 유형적인 존재를 매개하는 인자”로 인식되는가 하면, 이런 인식을 토대로 “죽음과 삶을 매개하는 이미지”로도 나타난다. 또한 “바닷물은 삶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로 간주”<sup>3)</sup>되기도 하는데, 이 때 바다는 우리가 태어난 근원지인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같이 바다는 중층적이면서도 복잡한 의미들을 상징한다. 인류문화의 기저에는 바다가 자리 잡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랫동안 바다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근래에는 바다를 하나의 구체적인 삶의 유형으로 접근하는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관점의 전환은 문학에서도 확인된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곧 바다에 대한 관심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해양문학’이라는 하나의 양식을 탄생시켰다.

지중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해양문학에 대한 지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해양소설’이니 ‘해양소설가’니 하는 명칭이 자연스

1) 이 글에서는 ‘바다’와 ‘해양’이라는 두 어휘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상징하여 사용하였다.

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99쪽.

3)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86쪽.

럽게 사용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우리 문학에서 해양문학이란 명칭은 아직 생소하다. 우리 문학 속의 바다가 “서양 문학의 경우보다 긴장과 공포, 신비와 환상, 생존에의 절박함이 훨씬 짙게 투영”<sup>5)</sup>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문학의 가치를 간과해 왔었다. 이는 우리가 바다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급급해 그것이 우리 삶에 스며든 이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sup>6)</sup> 즉, 우리는 지금까지 문학 속에 존재하는 바다를 거의 당연시했기에 그것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바다라는 공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으며, 이는 제주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는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의 서남해, 일본의 서해, 중국의 동중국해의 어귀이며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위치는 “해양 지리학적으로 해녀들이 물질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sup>7)</sup>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자연적인 환경이 제주사람들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남다른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문학작품에도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제주문학 속에도 바다를 담고 있는 해양문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제주 해양문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해양소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나아가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주체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주 바다와 다른 지역의 바다에 등장하는 주체와 삶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살펴

4) 최영호, 「한국 해양 소설 연구—현대 소설에 묘사된 바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쪽.

5) 위의 논문, 3쪽.

6) 최영호, 「몸, 공동체적 삶의 원형—오성찬의 소설 ‘바다’를 중심으로」,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2001, 324쪽.

7) 이경주·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426쪽 참조.

8) 현길언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제주 해양소설의 가치는 충분히 확인된다.

“섬과 바다의 문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도 땅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한국 문학의 입장에서는 주변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제주 문학과 관계가 깊다. 주변성은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문학이, 섬과 바다에 대한 문학의 의미가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적성과 문학의 본질성」,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오름, 1999, 29쪽.)

볼 것이다.

둘째, 제주 해양소설에서 나타나는 바다가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바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일은 해양소설에서 바다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전국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해양문학 심포지엄<sup>9)</sup>이 개최되기도 했고, 전 8권으로 구성된 『한국해양문학선집』<sup>10)</sup>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한국해양재단은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2007년부터 매년 ‘해양문학상’을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 유발과 해양문학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오긴 했지만,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다.

지금까지의 해양문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용어 개념 정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고전문학의 범주에서 표해록(漂海錄)류를 중심으로 해양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한 연구<sup>11)</sup>와 해양문학에 나타난 바다의 유형이나 인식<sup>12)</sup>을 살핀 연구들도 적

9) 1998년에는 제주에서 제주국제협의회 주최로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해양문학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윤재근, 현길연, 이청준, 강우식, 문충성, 김병택, 오성찬, 김영화, 박태일, 최영호, 고시홍, 고영기, 김종원, 김승립, 윤석산, 한림화, 허영선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창작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바다와 섬이 실제 작품 창작의 무대로서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10) 『한국해양문학선집』(한국경제신문사, 1995)은 1908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작품들 중 해양 관련 작품들만 골라 엮어 출간하였다. 1권에서 6권까지의 소설 작품(65편)은 최영호가, 7권과 8권의 해양 논픽션(15편)은 조규익과 최영호가 같이 작업했다. 이 작업은 미래사회의 구현에서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1) 윤치부, 「한국 해양문학 연구-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용옥, 「표해설화고」,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정병욱, 「표해록에 대하여」,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12) 오세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바다>」,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최갑진, 「한국 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김정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해양관과 ‘섬’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집, 한국문학

지 않았다.

지역 중심의 해양문학 연구<sup>13)</sup>도 미진한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의 해양문학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의 연구이며, 연구 범위도 해양소설에만 한정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해양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주바다와 관련된 작품의 가치를 살핀 연구<sup>14)</sup>와 현대소설에 나타난 해녀에 대한 연구<sup>15)</sup>가 있을 뿐, 본격적으로 제주 해양소설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아직까지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에 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은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의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해양소설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의 개념을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용어에 대한 연구는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며 학문적으로 규명함에 있어 충실한 논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윤치부는 「한국 해양문학 연구」에서 해양문학의 개념을 “첫째 바다가 작품 중에서 주제로 한 문학이고, 둘째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문학이고, 셋째 바다에서 직접 취재한 문학 작품이고, 넷째 바다 그 자체의 자연미가 대상이 되는 문학이고, 다섯째 인간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나 모험적 본능이 나타나는 작품”<sup>16)</sup>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표해류 작품을 해양문학의 관점에서 논의하며 해양문학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해양문학에 대한 종래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정의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황을문도 『해양문학소요』<sup>17)</sup>에서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을 제시한바 있다. 그는 해양문학은 바다와 인간, 바다를 통한 인간의 삶과 감성이 투영되어야 하며

---

이론과 비평학회, 1998.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3호, 한국한문학회, 2009.

13) 이원규, 「인천의 바다와 현대문학」, 『동서문학』 제25권 제4호, 동서문학사, 1995.

노창수, 「전남 지역 해양문학의 뿌리와 그 현황」, 『국어교육』 92호, 한국어교육학회, 1996.

구모룡·김정하,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학회, 2004.

안성길, 「울산의 해양문학」, 『사립어문연구』 제19호, 사립어문학회, 2009.

14) 김영화, 「제주 바다와 문학」, 『영주어문』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

15)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 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16) 윤치부, 앞의 논문, 5쪽.

17) 황을문, 『해양문학소요』, 전망, 2001.

우선적으로 바다 자체의 관조(觀照)가 요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또한 바다 자체와 배, 섬, 등대, 항구, 갯마을, 해안, 방파제 등과 같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조형물까지 인간의 감성이 작용한다면 해양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바닷사람들이 엮어내는 그들의 삶을 통한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담긴 모든 형태의 문학이 해양문학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최영호와 구모룡의 의견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으며,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었다.

최영호는 작품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하나의 범주로서의 장르로 해양문학을 제안한다. 그는 단지 바다가 있고 없음만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논의를 재고하여 해양문학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해양문학이란 용어는 관점의 전환, 다시 말해 문학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질 때 올바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해양문학은 바다만을 강조하거나 추구하는 문학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바다만을 강조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답답한 체험주의에 머물 위험이 크다. 바다에서의 실제적인 체험 뿐 아니라 비록 간접적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학에 절실히 녹은 것이라면, 그 또한 해양문학의 범주에 응당 포함시켜야 한다. 해양 문학 담당층이 꼭 바다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삶이 해양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작품 속의 바다를 평가하는 태도로는 작품 자체의 다양성은 물론 문학으로 찾는 바다의 얼굴을 올바르게 찾을 수 없다.<sup>18)</sup>

그는 바다만을 중시하면서 실제적인 바다 체험을 다룬 문학만이 해양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험주의 시각을 비판한다. “해양문학은 문학적으로 재현된 바다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찾자는 것이지 바다 자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sup>19)</sup>며 해양문학은 단순 도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0)</sup> 따라서 그는 해양문학의 개념 정립에 있어서도 그 중심엔 바다가 아닌 인간의 삶이 놓여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18) 최영호, 「한국 해양 소설 연구—현대 소설에 묘사된 바다를 중심으로」, 30~31쪽.

19) 위의 논문, 27쪽.

20) 여기서 최영호가 말하는 단순 도식은 구모룡의 ‘바다-배-항해’라는 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구모룡의 ‘바다-배-항해’라는 도식은 원양어업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연근해에 집중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양문학은 바다와 그 주변 것들이 인간의 삶을 중심축으로 하여 독특한 삶의 체험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보다 총체적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바다가 작품의 주제가 된 문학,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거나 배경으로 한 문학이라 함은 직접적인 바다 체험이 들어 있는 문학, 자연미에 도취되어 바다 그 자체를 노래한 문학, 바다를 통한 인간의 절실한 체험—동경, 희망, 모험심 등을 자극하고 담아낸 문학, 어촌을 포함해 도서 지방의 생활을 다룬 문학, 그 지방의 토속적인 문화와 결부된 문학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sup>21)</sup>

최영호는 해양문학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면서 해양문학의 영역을 12개 항목<sup>22)</sup>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해양문학은 ① 해양 번역 문학, ② 해양 수필 문학, ③ 해양 소설 문학, ④ 해양 시 문학, ⑤ 해양 가요 문학, ⑥ 해양 전기 문학, ⑦ 해양 기행 문학, ⑧ 해양 민요, ⑨ 해양 설화 문학, ⑩ 해양 희곡 문학, ⑪ 해양 전쟁 문학, ⑫ 해양 아동 문학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최영호는 해양문학이라고 해서 그 중심에 바다만을 놓고 논의하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바다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해양문학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양문학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칫 소재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해양문학에 대한 최영호의 이런 주장에 반해 구모룡은 해양과 연안역<sup>23)</sup> 그리고 내륙적 시선에 비친 바다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관점<sup>24)</sup>을 보여준다. 해양문학은 연안역 문학이나 바다 모티프를 요건으로 하는 범박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모룡은 해양문학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습적인 용어임을 지적한다.<sup>25)</sup> 특히 장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해양문학은 포괄적인 관습적 용어이며, 해양시와 해양소설<sup>26)</sup>은 구체적인 장르의 명칭이 된다는 것이다.

21) 최영호,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14~15쪽.

22) 위의 논문, 15~45쪽.

23) 연안역은 바다를 따라 잇닿아 있는 육지지역과 인근 앞바다를 의미한다.

24) 구모룡은 이를 연안역 문학 혹은 어촌문학(어민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당, 2004, 17쪽.

26) 구모룡이 말하는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위의 책, 19쪽).

해양시-해양 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된 시  
해양소설-해양 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된 소설

해양문학이라는 용어는 장르의 명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장르에 대한 학적 엄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해양 체험을 다루고 있거나 해양과 관련된 제재, 모티프, 이미지 등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장르의 귀속 요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문학을 범칭하는 해양문학과 장르를 엄두에 둘 때의 해양문학은 그 층위를 달리하여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관습적인 용어로서의 해양문학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장르론적인 관점에서 해양문학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야 한다.<sup>27)</sup>

그는 해양시와 해양소설에서 해양 체험은 작품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수부(水夫)와 이에 준하는 체험이 문학화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양소설이 그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되는 제요소들을 담아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모티프를 ‘바다-배-항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들이 해양소설의 주요 구성원리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해양문학은 근대적인 개념으로 “상선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교역과 원양어선에 의한 대양에서의 조업에 중심 역할을 한 선원들의 생활양식을 재현하면서 발생하였다”<sup>28)</sup>면서 “근대 이전에 해양문학은 존재하지 않았”<sup>29)</sup>음을 강조한다. 그는 바다와 연안의 어촌을 해양과 등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바다 이미지나 어촌의 생활양식이 그려진 문학을 해양문학으로 명명해 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구모룡의 주장은 해양문학에 대한 기존의 소재중심적이면서 포괄적인 정의를 장르의 개념에 입각하여 ‘해양시’와 ‘해양소설’로 구분 짓고,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견해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양문학을 선원의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파악한 점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옥태권은 『해양소설의 이해』<sup>30)</sup>에서 ‘바다에서의 삶’이 가능한 시기가 본격적인

27) 위의 책, 16쪽.

28) 위의 책, 38쪽.

29) 위의 책, 39쪽.

30) 옥태권, 『해양소설의 이해』, 전망, 2006.

해양소설 창작이 가능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시기이며 이 시점을 근대 이후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구모룡이 주장하는 해양소설의 구성 요건인 ‘바다-배-항해’라는 도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해양소설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 범주 안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양소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양식이 근대적 산물임을 내세워 해양소설의 범주를 근대성 안에서만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 항해와 조업이라는 틀의 설정으로 인해 구모룡과 마찬가지로 해양소설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의 개념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양문학에서 ‘바다’가 중요한 공간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만을 중요시하여 인간의 삶과 주변을 배제하는 식의 주장은 해양문학을 폐쇄적으로 이끌 우려가 있다. 또한 해양문학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바다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은 해양문학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바다’라는 소재에만 집중하여 해양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문학은 단순히 바다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벗어나 직접 뛰어들어 바다가 생활의 터전으로 나타날 때야 해양문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양이라는 먼 바다 위에서의 삶과 근대 이후의 선원집단의 등장만으로 해양소설의 범주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생생히 전해내려 오던 수많은 연안역 어민들의 삶과 바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다와 연안역 삶을 그리고 있는 문학을 해양문학의 주류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를 포괄하여 해양문학으로 보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해양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제주 해양소설을 검토하고, 제주 해양소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과 범위

해양소설은 소설유형<sup>31)</sup>의 차원에서 주제, 형식, 서술방법, 창작의도 등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류하면 공간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공간소설에는 해양소설 외에 농촌소설, 도시소설 등이 해당되는데, 각각의 공간이 갖고 있는 특이성으로 인해 구분된다. 공간소설은 작품 안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들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이성으로 인해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해양소설도 해양이라는 공간의 특이성으로 특수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해양소설의 서술 주체들은 해양 공간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여타의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주체들과는 달리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에 제한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해양소설 속의 공간인 바다는 작품 안에서 주체들의 삶과 어우러져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해양소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설 속의 해양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와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 해양소설의 주체는 ‘해녀’<sup>32)</sup>와 ‘보제기’<sup>33)</sup>로 구분된다. 특히 연근해 어업을 하는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해양 직업인으로, 특히 제주해녀의 존재는 매우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오래도록 외부에 생활인이라기보다는 특이한 여성으로 더 알려져 왔다. 이 여성 혹은 집단에 대한 호기심은 최근까지도 실재하는 생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환상적인 존재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십상이었다.<sup>34)</sup> 하지만 제주해녀는 바다를 일터

31) 소설유형은 소설이란 장르 또는 양식이 빚어낸 다양한 형태들과 내용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설장르나 소설양식의 하위개념에 해당된다(조남현, 『한국현대소설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13쪽.).

32) 해녀(海女), 잠수(潛嫂), 잠수, 잠녀(潛女), 잠녀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해녀’라는 용어가 관찰자와부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며 학문적으로도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3) 어부. 바다에서 해물(海物), 주로 고기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현평효 외, 『제주어사전』(개정증보), 제주특별자치도, 2009, 451쪽.).

‘보제기’는 ‘보자기’의 방언형으로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자기’를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설명은 잠녀(해녀)의 뜻풀이에 가깝다. 제주도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적 뜻으로 쓰인다. ‘보제기’를 ‘어제기’라 부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해안 마을을 ‘보제기동네’라 부르기도 하였다(강영봉·김동윤·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010, 239쪽.).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제기’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는 어로를 행하는 주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제주에서는 전복과 물고기 등을 주로 잡아서 진상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포작인(浦作人)’이라고 하였는데, ‘보제기’는 ‘포작인’에서 유래된 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부’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로 하는 전문 직업인이며 주체적인 여성 직업인임을 인식할 때, 해양소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대상이 된다. 또한 보제기는 제주바다에서 연근해 어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존재로 그들만의 문화 형성과 전수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주체를 해녀와 보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일은 제주 해양소설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되는 일이다.

또한 해양소설을 논의함에 있어 바다 공간을 분석하는 일은 해양소설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공간<sup>35)</sup>은 좀 더 입체적이면서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푸 투안은 “인간은 자연의 기하학적 패턴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추상적 공간을 만들며, 인간은 그들의 느낌, 이미지, 사유를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려 한다”<sup>36)</sup>고 하였다. 이는 인간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구체화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간 속에 살며,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한다. 즉,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삶의 현실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야기의 한 국면인 소설의 세계에서도 공간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 인자이며,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sup>37)</sup>

소설 속의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기보다 문화와 역사를 통해 구축된 사회적인 풍경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소설의 공간은 작가나 등장 인물의 내적 세계를 반영하며 인간이 세계에 대해 가지는 전망으로서의 개념도 함께 지닌다.<sup>38)</sup> 소설의 공간은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 인물과 사건, 그 외의 제반

34)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21쪽.

35) 공간에 대한 연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데아는 일종의 이념의 공간이었다. 이념은 관념적 이상의 세계로 일종의 인간의 상상력의 공간과 같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공간은 ‘모방의 공간’으로 자연으로 대체되는데, 사물간의 관계에서 공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논의는 칸트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칸트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실체로 공간을 파악하지 않고 관념적이고 선형적인 그의 철학을 근거로 공간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칸트의 형이상적 공간 개념은 바슐라르에 의해 경험적 인식론으로 대체된다. 바슐라르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상력의 힘의 기반을 얻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간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공간은 삶과 관련된 모든 학문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철학적 공간론은 문학적 공간론으로 전이되면서 문학에서의 공간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간 논의는 최근 이-푸 투안에 이르러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다(이세경, 『한국 현대시의 공간 인식』, 청동거울, 2007, 31~33쪽 참조).

36)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개정 2쇄), 36쪽.

37)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체의 지평」,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13~14쪽.

환경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소설 속의 공간은 소설의 전모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양소설의 중심에는 바다라는 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물론 소설에서 공간이 지배적으로 작용해서 인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제의 구현에 기여하는 작품은 서사 일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빈도수로 볼 때, 서사 일반의 그것에 비해 해양소설은 압도적이다.<sup>39)</sup> 더욱이 해양소설이 해양 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문학이라고 볼 때, 해양소설에서의 바다는 단순한 문학적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 바다라는 공간에서 형성되는 문화와 역사는 공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남다르게 인식된다. 따라서 해양소설 속에 나타나는 바다에 대한 공간 인식을 살펴보는 일은 제주 해양소설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며 해양소설을 탐색하는 데 유효한 방법론이 된다. 이 방법을 통해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제주 해양소설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제주 해양소설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대상에 대한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어디까지를 제주 해양소설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인가.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에 관한 소설들은 김정한의 「월광한」(1940), 허윤석의 「해녀」(1950), 황순원의 「비바리」(1956), 정한숙의 「해녀」(1964)·「굴밭 언덕에서」(1968) 등 모두 외지인 작가에 의해 쓰였다. 이들 작품에서는 대체로 제주해녀를 낭만적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40)</sup> 그에 비해 제주에서 현대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70년대 이후에는 해녀를 다룬 소설들이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발표되기 시작했다.<sup>41)</sup> 또한 보제기

38) 김종건, 『<구인회>소설의 공간설정과 작가의식』, 새미, 2004, 20쪽.

39) 옥태권, 앞의 책, 30쪽.

40) 김동윤은 1960년대 제주해녀에 관한 작품들이 제주해녀를 이국적 이미지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쓰여진 제주해녀와 관련된 소설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 작가들의 작품이며, 때문에 제주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통해 제주해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굳혀 놓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김동윤, 앞의 책, 356~357쪽.).

41) 김영화는 1970년대 제주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주와 관련된 작품이 많이 나왔고, 그것이 문단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29쪽.). 김동윤도 제주문학의 울림이 커지고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보고 있다(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 207쪽.). 또한 1970년대 이후는 제주의 문학협회가 주도되어 본격적인 문인활동이 시작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현대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강영기, 「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 『영주어문』 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189쪽.).

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들도 1970년대 이후 출현하기 시작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오성찬·현기영·현길언·고시홍·오경훈·한림화 등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제주해녀와 보제기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주문학에서 해양소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바다와 제주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작품화될 때 더욱 구체적인 면모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문화와 풍토가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정서가 반영된 문학이 진정한 제주문학인 점과 관련이 있다.<sup>42)</sup>

한반도의 시각에서 그린 바다의 모습과 섬 출신들이 다룬 바다의 모습은 대체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시각이 반영된 작품은 바다나 섬을 자기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상황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한 작품들은 직접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제주바다를 삶의 일부로 인식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그런 작품일수록 제주문학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제주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현대문학이 시작된 시기인 1970년대<sup>43)</sup> 이후의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 중 작품 전체에 해양 체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제주 해양소설로 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sup>44)</sup>은 모두 6편이다. 그 중 고시홍<sup>45)</sup>, 현기영<sup>46)</sup>, 홍명진<sup>47)</sup>의 소설은 해녀가 서술의 주체로 나타나는 작품이며, 오성찬<sup>48)</sup>, 오경훈<sup>49)</sup>의

42) 김병택은 지금까지의 지역문학의 개념은 지역의 문학이라는 광의의 개념과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 작품 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 작품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각각 사용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학의 개념에서 작가가 그 지역 출신 작가가거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이어야 한다는 지역적 조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많은 난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의 지역문학을 생각할 때,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23~24쪽.).

43) 현대소설사를 소설유형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의 소설유형사에서 해양소설은 소설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다. 이는 1970년대 이전에는 해양소설로 분류할 만큼 뚜렷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 해양소설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조남현, 앞의 책, 19쪽 참조.).

44)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텍스트를 확정하여 언급한 후, 본문에서는 해당 작품의 인용 쪽수만을 명기함.

45) 고시홍은 1948년 제주도 구좌읍에서 태어났다. 1983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공모에 단편 「죽음의始作」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46) 현기영은 1941년 제주시 노형동에서 태어났다.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아버지」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47) 홍명진은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났다. 2001년 소설 「바퀴의 집」으로 제10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

소설은 보제기가 서술의 주체로 나타나는 작품이다.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1980)<sup>50</sup>)는 단편소설로 스무살에 과부가 된 해녀 역순이의 삶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역순이를 통해 제주바다와 함께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제주해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1989)<sup>51</sup>)은 1930년대 제주도에서 있었던 해녀항쟁을 형상화하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제주해녀의 삶이 섬세하게 재현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주문화와 관련된 제주바다의 여러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홍명진의 『숨비소리』(2009)<sup>52</sup>)는 작가 어머니의 삶을 토대로 쓴 장편소설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제주해녀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품고 사는 인물로 바다와 함께 극절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성찬의 「어부들」(1971)<sup>53</sup>)은 조그만 배를 타고 제주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소박한 보제기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보제기들의 삶을 구체적이며 근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2000)<sup>54</sup>)는 중편소설로 삼대에 걸친 보제기

---

며 2008년에 단편소설 「터틀넥 스웨터」로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홍명진은 엄연히 따지면 제주 출신 작가로 볼 수 없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주사람이며, 『숨비소리』의 주인공은 제주 출신 해녀인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기에 제주 해양소설로 분류하는 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의 대화가 제주어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으며 “내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버리지 못한 말이었고, 숨결이었다”(홍명진, 『숨비소리』, 삶이 보이는 창, 2009, 335쪽.)라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제주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8) 오성찬은 1940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별을 따려는 사람들」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복무 3년을 제외하고는 제주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의 삶뿐 아니라 작품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문학적 근간이다(오성찬, 「나의 소설에서의 섬과 바다」,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133쪽 참조).

49) 오경훈은 1944년 제주도 구좌읍에서 태어났다. 1987년 『현대문학』에 「死婚」이 천료되어 등단했다.

50)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51)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52) 홍명진, 앞의 책.

53) 오성찬, 「어부들」, 『오성찬 문학선집』 1, 푸른사상사, 2006.

54) 오성찬,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2001.

오성찬은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의 작가의 말에서 “나는 1970년대 전반에 한라산을 배경으로 소와 말, 짐승떼들이 뛰어 노는 자연생태계를 그린 중편 「한라산」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후 줄곧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도 작품 한 편을 써야겠다고 속으로 버리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보제기가 연장 쟁기듯 자료를 모아 왔는데, 그것이 비로소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라는 중편이 되었다. 이제야 바다를 터전으로 험한 삶을 살았던 보제기와 잠수 조상들에게 다소나마 빛을 갠 기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라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해양소설이라는 장르를 엄두하고 창작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와 해녀 일을 하는 한 집안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보제기들의 삶과 가족사에 얽힌 제주바다의 이면을 되짚어 보면서, 제주바다를 통해 공동체적 삶을 조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경훈의 「어선부두」(2005)<sup>55)</sup>는 바다보다는 주로 항구와 어민들이 그려진다. 근대화로 인해 변화되는 제주 항구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데에 다른 작품들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주체를 해녀와 보제기로 나누어 살펴본 후, 작품 속에서 제주바다가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작업을 토대로 제주 해양소설이 다른 지역의 해양소설과 구별되는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에 해양문학에서 제주 해양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제주 해양소설의 가치와 전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양문학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55) 오경훈, 「어선부두」, 『제주항』, 각, 2005.

## II. 제주 해양소설의 체험 주체와 공간 인식

### 1.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체험 주체

바다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해양소설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있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주체는 바다라는 공간과 끊임없이 조응하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존재이다. 특히 제주바다라는 제한된 공간은 제주 해양소설 속에 나타나는 주체들의 성격과 삶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지역의 해양소설에 등장하는 주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제주 해양소설에 등장하는 주체를 해녀와 보제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해녀'의 삶

해녀들에게 바다는 힘든 노동의 공간이면서 비극적인 희망의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제주해녀들은 여남은 살부터 물질하는 법을 익힌다. 여름이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맥질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물질하는 데 필요한 용구도 갖추어 간다. 바다에 들어갈 때 머리에 쓰는 물수건, 잠수할 때 입는 물적삼과 소중이, 물안경과 작살, 비창, 정게호미, 그물망사리, 뒤옹박(테왁) 등은 해녀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으며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기도 했다. 해녀들은 매우 간단한 도구들만을 가지고 바다밭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육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바다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에서도 자신의 신체와 바다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해녀 역순이의 삶이 나타난다. 역순은 고기잡이 나갔던 남편을 잃고서 혼자 남매를 키우고 있다.

수면 위로 몸을 끌어올린 역순이는 휘파람을 불듯 틀어막았던 숨통을 터뜨렸다. 하얀 포말이 수면 위로 흩어졌다. 다시 하늘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물구나무를 서듯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갔

다. 들녘길을 줄달음치듯 바다 밑바닥을 더듬어 나갔다. 숨통이 저러오기 시작했다.(150쪽)

역순이는 ‘숨통이 저러오는 고통’을 감내하며 물질작업을 한다. 고통을 얼마나 감내해내느냐에 따라 채취물의 양은 달라지며, 육지에서의 형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항해와 어로를 하기 위해서는 배라는 인공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녀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바다에서의 어로를 행한다. 해녀의 몸 자체가 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신체라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작업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전복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숨통이 저러오는 고통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수면 위와 바다 밑을 거듭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녀들에게 있어 ‘숨 막히는 고통의 감내’는 곧 환금성(換金性)과 직결되므로, 바다만 허락한다면 그 정도의 고통은 얼마든지 견뎌내려고 한다.

바다 우는 소리는 여전했다. 아무래도 물질하러 가긴 글러먹은 것 같았다. 바다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은 몰살이 거세다는 징조였다.

...(중략)...

남편 제사가 내일인데 아직 모두 터에 놓았다. 여차하면 승냥만 떠놓고 제사를 지내게 됐다. 달포 안으로 다가선 시아버지의 담제일이며 비료값, 을선이 남매의 사친회비. 금년엔 해묵은 초가지붕도 갈아엎어야 한다. 이영질하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들어 그냥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품삯 대신 하다못해 풍년초나 파랑새 한 갑씩은 내밀어야 한다. 지난번 태풍 때 무너진 돌담도 여태 그냥 있다.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돌담 구멍만큼이나 많았다. 말 모른 돈이 발 뺄고 앉아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돈 나올 구멍이라곤 이승과 저승의 문턱, 바다 밑의 설드럭밖에 없다.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숨통을 뒤통박 하나에 저당잡혀 놓고 해물을 건져 낼 수 있는 바다 속의 토지뿐이다. 겨울이 지날 때마다 초가지붕을 덮썩우는 은빛 모래가 사금파리였으면 했다. 아니, 바다를 잠제우는 수면제만 되었어도 좋겠다. 뒤통박을 여(巖) 삼아 바닷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만 해줬어도 여한이 없겠다. 바다만 숨기척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등짐으로 지어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뚝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이 모두가 역순이에게 있어선 금은보화였다. 열 개의 발가락으로 하늘을 걷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이 따를망정, 바다에서 거뒀들이는 것들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이었다.(132~133쪽)

젊은 나이에 바다에서 보제기 남편을 잃은 역순이에게는 의지할 곳은 바다밖에 없다. 남편의 빈자리만큼이나 역순이에게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제사비용, 을선이 남매의 사친회비, 비료값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그녀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이승과 저승의 문턱’인 바다밖에 없다. 바다에서 거둬들이는 것들은 비료값 걱정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역순이에게 있어 삶은 고통 그 자체이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바다밖에 없지만 바다에 의지한 삶이란 녹록치 않다. 그렇기에 역순이는 딸 을선에게 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이 뒤옹박 하나에 의지하고 사는 해녀의 삶을 대를 이어서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을선이와의 다툼에서 생긴 뒤옹박의 금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야만다.

① 딸그락 탁!

기둥에 걸어뒀던 뒤옹박이 그물망사리에 뒤엉켜 뗏돌 위로 떨어졌다. 심장에 금이 가는 소리에 역순이는 빗자루를 내던졌다. 마당으로 나동그라진 뒤옹박을 끌어안았다. 꼭지 부분이 좁쌀방울만큼 타개져 있었다. 그러나, 물질하는 데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135쪽)

② 머릿속은 온통 딸그락 탁! 하고 솥통에 금이 가던 소리로 꽉 찼다. 좁쌀방울만큼 타개져 있던 뒤옹박 꼭지 부위에 팔알맹이만큼 상처기가 나 있었다.

...(중략)...

구멍 신호를 보내던 물수건마저 바람에 날려 갔다. 소라, 전복이 담긴 망사리는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다. 그러나 솥통이 닳게 거둬들이는 것들이기에 어느것 하나도 내던져 버릴 수가 없었다. 뒤옹박에 물이 차서, 몸뚱이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그냥 헤엄쳐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모든 걸 용왕님께 맡기기로 했다.

...(중략)...

역순이는 혼백(魂魄) 상자와도 같은 뒤옹박을 껴안은 채 쉬지 않고 다리를 놀려댔다.(151~152쪽)

해녀들에게 뒤옹박은 물질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다. 또한 해녀들은 뒤

옹박의 부력에 의지해 가슴을 엮고 헤엄치며,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 두는 망사리를 매달아 놓는다. 바다 위에 떠있는 뒤옹박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억순이에게 뒤옹박이 떨어지는 소리는 ①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장에 금이 가는 소리’와 맞먹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억순이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뒤옹박에 금이 가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위기의 순간에 억순이는 뒤옹박을 꺼안은 채 바다로 나간다. 이는 뒤옹박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뒤옹박은 억순이의 ‘현실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하나의 장치이며, 해녀의 숙명적인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표류하는 이어도」에 나타나는 억순이의 삶은 제주해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제주해녀들에게 바다는 육지에서 깊어져야 할 고통스러운 삶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것이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에는 제주해녀로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여육, 순주, 영녀, 정심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의 그들의 삶에서도 제주해녀의 고통스러운 삶은 여실히 드러난다.

그건 그렇고, 더 다급한 것이 시아버지 제사다. 나흘 있으면 제삿날인데 제물 차릴 돈이 없다. 그 불한당놈이 그 꼴에 자식이라고 아비 제삿날엔 집에 들어올 것이다. 어떡하나? 돈을 훔쳐간 주제에 젓상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고 한바탕 난리굿을 벌일 게 틀림없다. 아무리 정나미 떨어지는 시집이긴 하지만, 흰 쌀밥이 아닌 누렁 조밥을 메라고 귀신한테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춘궁기에 어디 가서 돈을 빌리며 하다못해 흰쌀 한 줍을 꾸어달라고 손을 벌리나. 게다가 쌀이나 돈을 꾸어서 제사지내는 집 며느리는 못난 여자라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데……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을까? 아이고, 순주는 괴롭게 몸을 뒤체며 한숨을 내쉬었다.(25 쪽)

순주는 다가오는 시아버지 제사에 올릴 제물 차릴 돈이 없어 전전긍긍한다. 순주는 미리부터 바다밭을 드나들며 시아버지 제사에 쓸 제수용품 마련하기 위해 한 푼 푼 모아 두었지만 남편이 그것을 훔쳐가고 만다. 쉴 틈 없이 바다밭을 드나들어봤자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주의 남편은 동네에서 왜놈 밀정 노릇을 한다고 소문이 파다한 자이다. 그런 그는 매일 술을 마시고 순주에

게 매질까지 한다. 순주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일 뿐이다. 견디다 못한 순주는 남편 몰래 출가물질<sup>56)</sup>을 가기로 결심한다.

과거 제주해녀들은 음력 3월 초가 되면 출가물질을 떠났다. 제주해녀들은 해산물이 많은 바다면 어느 곳이든지 갔으며, 배 이동시간을 벌여 해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채취하기 위해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배에서 서로 뒤엉켜 자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바로 물질을 했으며, 이런 생활을 하는 무리 중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녀도 있었다.

덕순이는 해산한 지 일 주일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배에 올라 다시 물질을 시작했다. 보릿짚을 깠 작은 대바구니를 아기 구덕 대신으로 사용했는데, 그녀가 물질하는 동안 무생이가 배 위에서 아기를 돌봤다. …(중략)… 시린 몸을 녹이려고 물에 나온 잠녀들이 벌떼같이 불턱에 덤벼들 때, 제일 경황없이 허둥대기는 역시 아기 딸린 덕순이었다. 자기 몸도 녹여야지, 아기한테 얼어붙은 젖꼭지를 물릴 수 없어 끓는 물에 쌀가루를 풀어 미음을 만들어 먹여야지, 불턱에서 탁탁 튀는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도 모를 지경이었다.(264~265쪽)

해녀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화덕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차가운 수온 때문에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다. 이런 고통스런 출가물질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녀도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조리도 제대로 할 겨를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나선 것이다. 급기야 연락선이 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배가 흔들려 아기가 물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좀 더 나은 채취를 위해 출가물질을 나선 제주해녀들의 삶도 고단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어느 바다에서도 뛰어난 적응력과 숙련된 기술을 보여줬으며, 제주해녀로서의 기질을 잃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한번 해녀는 영원한 해녀였다.

계절마다 생산물이 다른 것이 바다밭이었다. 칙칙한 빛깔의 물가에 파래떼가 파랗게 뒤덮이는 봄에는 미역과 톨, 질푸른 색이 무르녹은 여름바다엔 천초와 감태, 하늬바람이 구름떼를 물

56) 출가(出稼)는 해녀 자신들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물질하는 것을 말한다. 곧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작업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바깥물질’이라고도 한다.(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 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209쪽.)

고 오는 가을과 겨울의 찬물에는 살찐 소리와 전복…… 그 바다밭을 계절 따라 일구어 먹는 잠녀들의 일생에도 아기 잠녀-중군 잠녀-상군 잠녀-노인 잠녀로 이어지는 사계절이 있었다. 물가에서 물장구치며 해업을 배우던 계집아이들이 열두어 살쯤 되면 아기 잠녀가 되어 조그만 태왁을 안고 얇은 바다에서 물질을 시작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깊은 물로 옮겨가 열댓 살 넘으면 ‘중군’ 소리를 듣고 스무 살쯤부터는 까마득히 먼바다, 심지어 육지 바다까지 진출하는 상군이 되었다. 상군 잠녀는 20여 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고 마흔 살 넘어서부터 기력이 떨어짐에 따라 다시 차츰차츰 얇은 바다로 뒷걸음치다가 예순 살이 넘으면, 아기 잠녀들이 물질하는 가장 얇은 물로 돌아오고 마는 것, 그것이 잠녀의 일생이었다. 밀물과 썰물의 순환, 어려서 썰물 타고 먼바다로 나아갔다가 때가 차면 다시 밀물에 밀려 노인으로 돌아오는 잠녀의 일생, 밀물의 끝은 죽는 자의 마지막 숨을 덮어주고, 썰물의 시작은 태어나는 자의 최초의 숨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 가는 것이 모든 잠녀의 소망이었다.(354~355쪽)

위와 같이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에서도 제주해녀들의 힘겨운 삶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출가물질에서의 고된 노동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강도의 작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녀로서의 삶도 바다에서의 삶도 숙명이다. 바다의 섭리에 따라 일생을 살길 원하는 제주해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양 직업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홍명진의 『숨비소리』에서는 해녀로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 주인공은 제주해녀의 딸로 태어나 해녀의 삶을 살아간다. 제주의 비극적인 근현대사인 ‘제주 4·3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을 잃은 그녀는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sup>57)</sup>

① 타고나길 내 몸은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물질을 해야 했다. 달리 먹고 살 방도가 없었다. 악으로라도 버티지 않으면 불쌍한 내 새끼들은 누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까.(24쪽)

② 마을의 아낙들 대부분이 물질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살고 농사일을 했다. 새벽같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바람 자고 풍량이 가시는 기미가 보이면 호미를 내던지고 물웃 짐을 챙겨

57) ‘제주 4·3사건’ 기간에 제주도민의 희생은 2만 5000~3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성의 피해가 컸는데, 이후 살길을 찾아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제주해녀도 많았다.

바다로 나갔다. 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물질을 못하는 여자들도 있고 딸자식한테까지 그 험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바다에 못 들게 하는 집들도 더러 있었지만, 시어머니들은 물질 잘하는 며느리를 제일로 쳤다.(25쪽)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한 길은 바다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제주 해녀의 딸로 태어나 해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 지워진 것도 아닌데 그녀는 해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딸들에게는 해녀의 삶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더욱 악착같이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그녀가 악착같이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아들 기환이도 있다. 숨통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 기환이를 생각하면 바다 속에서의 작업은 기쁜 일이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무엇이랴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결국 자살하고 만다.

멍게 하나 주워 올라오면서 울고, 전복 하나, 성게 하나 주워 올라오면서 울었다. 전복이 다 닥다닥 붙은 바위를 발견하고는 긴 숨을 몰고 곤두박질쳐 들어갔다. 빗창으로 전복을 떼어 즉 대기에 담고 물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물속에서 헤매고 있나 생각하면 다시 슬픔이 차올랐다.(304쪽)

아들의 자살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바다 속에서 풀어내는 주인공을 통해 제주해녀의 삶에 바다가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녀가 차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미쳐 버리거나 죽어 버릴 수조차 없었던 것은 바다가 거기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제주해녀들에게 바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노동공간이기도 했지만, 힘든 생활을 위로 받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집안의 어려움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바다에 나가 물질에 열중하기도 했다. 제주해녀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숨비소리』에서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제주해녀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제주에서 나와 이주 지역에서도 제주해녀들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물질을 한다.

해녀들은 어디를 가나 악착같은 근성으로 살았다. 그렇게 악착스럽지 않으면 팡팡 언 날 바다에도 들어갈 수 없거니와 남들 보기에든 험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들은 핫옷을 끼입고 귀를 싸매고 다닐 때, 허벅다리를 다 내놓은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하면 육지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양 했고 하나같이 독종이라고 혀를 내둘렀다.(140쪽)

이른바 ‘제주집’이라고 불리는 제주해녀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악착같은 근성으로 바다가 언 날에도 물질을 나간다. 제주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녀들의 삶은 항상 바다와 함께 한다. 또한 그곳 바다를 제주해녀의 습성에 맞춰 자신들만의 터전으로 가꾸며 삶을 이어나간다. 제주해녀들은 대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랜 타관살이에도 그녀들의 말 토씨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니 어딜 가나 제주해녀임이 말에서부터 확연하게 표가 났으며, 그래서 ‘제주집’들은 싸잡혀 굶은일에 욱을 먹기도 한다. 이렇게 『숨비소리』에 등장하는 제주해녀들은 어느 바다에 있거나 강인한 ‘제주해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표류하는 이어도」, 『바람 타는 섬』, 『숨비소리』에 등장하는 제주해녀들은 하나같이 현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바다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제주해녀로 살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닳아있다. 그들은 제주해녀로 살아가는 것이 숙명인 양 자신들도 모르게 바다의 속성을 닮아 제주해녀가 되어간다. 이러한 제주해녀들의 모습은 강인한 해양 직업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제주 해양소설에 등장하는 제주해녀들은 기존 남성들의 주무대로 여겨져 왔던 바다가 사실은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제주해녀들은 직접적으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다와 여성의 삶이 밀착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제주해녀들이 바다를 깊이 내면화하면서 감내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곧 인간과 바다가 하나로 육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보제기’의 삶

제주도의 배는 ‘덕관배’와 ‘테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어로에는 주로 뗏목 배의 일종인 ‘테[筏]’가 이용되었다. 제주도의 뗏목

배인 테는 ‘터베’·‘터위’·‘테베’·‘테우’·‘테위’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제주도의 경우, 화학비료가 흔해지기 전인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테는 연근해 어로와 해초 채취용으로 쓰여 왔다.<sup>58)</sup>

제주바다에서 테를 이용해 연근해 어로를 행하는 주체는 보제기이다. 이들은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어업활동을 하며 삶을 꾸려나간다. 제주의 보제기는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제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로는 오성찬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작품에서 제주의 서민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그들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59)</sup>

오성찬의 「어부들」은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의 보제기가 고기잡이를 나왔다 바다 위에서 하루 동안 표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는 윤방홍, 허장이, 김두규라는 세 명의 보제기가 등장한다.

윤방홍은 보제기답게 좋은 날씨에 출어(出漁)의 기대로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아버지 제삿날인 것을 깨닫고는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망설인다.

“압다, 보제기(어부)가 아방 제사에 마른 갱국(제삿국) 올릴텐가? 아들더러 집안일 보게 하고 자네가 견게.”(280쪽)

윤방홍은 아버지 제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한편으로 보제기가 아버지 제사에 올릴 고기를 직접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허장이, 김두규와 함께 바다로 나간다. 세 사람이 타고 간 배는 아주 작은 어선이다. 그들은 한나절이나 노를 저어 한라산 봉우리가 까마득히 보이는 데까지 나아간 다음에 각각 낚시줄을 드리운다.

① “어이, 뭇털 좀 낚았는가?”

해가 서녘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해수(海水)로 얼룩이 진 옷을 입은 법환리(法還里) 밤 낚시꾼들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잡긴 뭘 잡아, 헉숙이 하나, 편편이 하나(말짱 헛일)로고.”

58)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제주해역』, 경인문화사, 2002, 425쪽.

59) 김영화, 앞의 책, 13쪽.

허장이가 자기 바릇구덕을 들어 바닥을 툭툭 털어 보이자,

“허, 허, 허!”

“하하하.”

양쪽 배에서 웃음이 터지고 한때 바다 가운데가 왁자한 웃음판이 되었다.

그러더니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바다가 삼켜버렸다.

이때부터 방홍은 심심찮게 입질을 하는 고기에도 신경이 안 가고 돌아갈 걱정 뿐이었다.(281~282쪽)

② 돌아가는 자릿배(자리=도미의 일종)나 있으면 혼자라도 붙어갈 생각으로 암만 둘러봤으나 그 넓은 시야 안에 들어오는 거라곤 아무 것도 없다.(283쪽)

좋은 날씨 탓인지 드리우는 낚시줄마다 고기가 올라온다. 그러나 방홍은 입질 하는 고기에도 신경이 가지 않는다. 방홍은 제사 걱정에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든다. 반면 허장이와 두규에게선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 허장이의 낚시줄에 갈치가 걸리면서 두규와 방홍에게도 갈치가 잘 물리기 시작한다. 갈치 낚는 맛에 방홍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사람과 갈치낚시를 하던 중, 밤이 꽤 으스스한 시간이 되어서야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얼마쯤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한바탕 휘뿌리고 지나가더니 앞을 가늠하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 모자반에 배가 걸리고 만다. 세 사람은 맨 몸으로 배 주위의 모자반을 베어내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물 속에 들고 나기를 계속하면서 낮으로 모자반을 헤쳐내고 배를 밀어보아도 모자반은 배와 함께 바다 가운데로 떠내려간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보니 방홍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게 못내 아쉽고, 아버지의 제사를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러던 중 허장이가 말을 꺼낸다.

“그때는 자네 부친도 한 동아리[同業者]였지.”

노인은 턱으로 방홍을 가리켰다.

“그때도 밤낚시를 왔다가 돌풍을 만나 할 수 없이 지귀섬[地歸島]까지 바람에 불려갔지. 그네덜도 아다시피 그 섬이 마치 이 물망봉테기처럼 납작한 섬 아닌가? 그런데 절(파도)이 센 날은 섬이 거의 잠기다시피 한단 말야. 이 날도 우리가 이 섬에 불려갔을 때는 이미 물속에 잠기다 싶은 때였지. 그래도 파도와 싸워가며 어떻게 어떻게 나무둥치에 닻줄을 비끌어낼 수 있었다지. 자네 부친이, 키는 작았지만 여간 힘이 세고 날랜 보제기가 아니었으니…….”

노인은 숨이 찬 듯 잠깐 말을 쉬었다. 저편 가에 앉은 두규는 멍하니 별로 듣지도 않는 눈치로 방홍은 이마에 주름을 파고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기 아버지 얘기니까 관심이 가는 모양이었다.

“……그래놓고는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배 위에 앉아 바다가 자기만 기다리는 거지. 눈앞에 마을을 두고 젠장 환장하겠데이. 한라산은 가늠하고 해변에 성난 파도는 허영계 부서지지…… 이틀 낮 이틀 밤을 지내니까 도무지 잠이 와 못 배기겠대. 그때도 세 사람이었는데 서로 꼬집어가며 우스운 얘기도 해가며 시간만 잡아먹는 거지. 배는 그 사이에도 파도에 밀려 왕창왕창 부서져가고 우리도 파도에 덮치지 않으려고 의지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앉았지. 겁도 났지만 나중엔 재미도 나는데 좌우간 잠이 와 못 배기겠대, 그래도 깜빡 졸았다간 아주 물귀신이 되는 판인데 어쩔거여?”

“말짱 거짓말 아니여?”

듣고 있지 않은 듯 멍청이 앉았던 두규가 시큰둥하게 한마디 했다.

“허, 바다 가운데서야 모두가 거짓말 같은 얘가지. 자네덜이나 내 집에서 지금 우리가 이르고 앉았을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할 건가? 말짱 거짓말이라지.”

“호호호!”

갑자기 방홍이 웃자 그 웃음소리는 공간이 메아리도 없이 삼켜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왁자왁자 떠드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도깨비에 흘려있는 듯한 착각과 자기들 자신이 도깨비가 된 듯한 착각이 섞갈려 떠올랐다.

“자아! 힘을 내고 우리 또 한 번 해놀까?”(292~294쪽)

갑자기 거센 바람이라도 불면 배가 통째로 뒤집혀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허장이는 방홍과 두규에게 과거 자신이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허장이의 모습은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바탕 웃고 난 뒤, 다시 현실의 상황을 일깨워주는 허장이의 모습에서 그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망망대해 위에서 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마음속의 두려움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 40여 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허장이는 그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바다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방홍과 두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장이의 침착함과 지혜로 결국 세 사람은 이틀 만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어부들」에 등장하는 보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부와는 좀 다르다. 소위 뱃사람이라고 불리는 어부들은 거칠고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어부들」에 등장하는 보제기들은 소박하고 순박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오성찬은 「어부들」에서 지난날 제주 보제기의 순박한 삶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성찬의 중편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는 그가 전에 발표했던 「어부들」에 비해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보제기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주사람들의 곡절 많은 삶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도 바다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보제기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부들」과 거의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비슷한 장면을 보여준다. 제주바다에서 평생 보제기로 살아온 아버지와 허장의, 두규 씨가 귀항 예정일이 지나도 포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던 중 모두에게 전혀 예기치 않게 거친 바다 속에서 배가 나타난다. 배에는 아버지와 허장의 두규씨가 안간힘을 다해 바다와 싸우고 있었다.

“겔세 말이우다. 허나 이 바당 위에서 메칠을 버텼는디 이제 더 버티는 것도 무리 아니우파? 사람덜이 죽을 압박이 되니까 들어올 생각을 헌 것일 거우다.”

듬직한 중년의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말에 응대했다.

“옛날에도 무서운 게 해변에 와서 부딪치는 ‘갓절’이라고 했느니. 게나제나 파도가 센 때는 먼 바당으로 나가야 살 수가 있는 거라.”

“삼십 년 넘어 바당엘 댕긴 우식이 아방네가 무사 그걸 모릅니까? 경해도 들어올려고 허는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신탕주.”

“허긴 그럴 것이여. 이 하늘만씩 들락귀는 바당에 들어오겠다고 저 극성이니……이제 천운에 맡길 수배끼…….”(212쪽)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는 앞바다보다 먼 바다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그걸 모르는 우식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바다와 맞서 싸우며 포구로 들어오려고 노력한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부모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섞갈리며 떠올랐다. 그런 중에도 가장 뚜렷이 떠올라서 그를 격려하는 건 늙으신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죽으면 안 돼. 그는 억울해서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눈은 자꾸 감겨 오는데 아아, 그래도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는 부르짖었다.(264쪽)

바다가 자신을 삼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해 가족의 품으로 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산더미같이 큰 파도인 ‘누팔’이 겹쳐 몰려오고 배가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난다. 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세 사람은 같은 바다에서 동시에 수중고혼이 되고 만다. 세 사람을 삼켜버렸던 바다는 며칠 뒤 허장의와 두규씨의 시체는 해변으로 날라다 놓았지만, 아버지의 시체는 영영 돌려보내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바당에 의지하고 사는 사름덜이란 늘 등에 칠성판을 지고 사는 것”(244쪽)이라고 되뇌었다.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칠성판을 등에 지고 사는 것과 매한가지인 것이다.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은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바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바다에 단련되어 운명에 의지하고 초연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떻게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으랴. 특히 시체 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우식이 아방, 우식이 아방, 살아 생전 바당에 들엉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바당과 인연을 끊지 못하고 바당 속에 빠져 바당귀신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우파? 난 어떻 살렌, 우리 아이덜은 어떻 살렌 지 혼자 가부는 거라? 아이고, 나는 못 살아…….”(294쪽)

남편의 죽음에 이제까지 참아오던 슬픔이 붓물처럼 터져 버린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슬프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들 각각의 삶에는 바다와 연관된 죽음과 슬픔들이 내재해 있다. 그렇기에 한 가족의 슬픔은 마을 전체의 슬픔이 되고, 서로 위안을 받으며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식의 눈에는 이런 삶이 ‘야만의 삶’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저기 나죽나죽한 시체 없는 봉분들. 그것들은 누가 가리켜주지 않아도 이내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나는 질끈 어금니를 깨물었다. 내 시야에 큼지막한 백상아리 한 마리가 게걸스럽게 사람의 어떤 부위를 잘라내어 피를 흘리는 장면이 떠올랐다. 야만의 삶.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들이 살아온 것은 순전히 야만의 삶이었다. 나는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요즘 들어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한 그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294~295쪽, 밑줄: 필자)

아버지의 장례를 지켜보던 우식이는 대를 이은 보제기들의 비극에서 ‘야만의 삶’을 느낀다. 우식이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몸으로 바다와 부딪치며 고생하는 삶을 견디기가 싫었다. 때문에 우식이는 ‘야만의 삶’을 제공하는 바다를 벗어나려 하지만, 그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한다.

① “우식아, 너 바당이 무정해 뵈고 원망스럽지 이?”

나는 역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잠자코 그의 얼굴만 쳐다봤다.

“허지만 바다는 그래도 우리에게겐 무한한 재산이고 보배니라. 저 바당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 있고, 그걸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는 거라. 원망스러울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경해도 이때까지 우리를 살린 것이 저 바당이라. 바당이 없어 봐라. 우리가 그동안 어떻 살아시크냐?”(305쪽)

② -느도 크민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거여!(307쪽)

존경하는 할아버지는 우식이가 보제기의 삶을 이어주길 바란다. 할아버지는 우식이가 바다에서의 삶을 ‘야만의 삶’이라 생각하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우식이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우식이에게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보낸다. 어쩌면 그것은 보제기의 자손들에게 지워진 운명일 수도 있다. 결국 삶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바다라는 공간을 자신에게 투사함으로써 운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다와의 친연성(親緣性)을 생래적으로 지니고 살아온”<sup>60)</sup> 바닷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다.

60) 김정하, 『바다를 담아낸 소설과 민속』, 전망, 2005, 27쪽.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바다를 더 전으로 살아가는 특색있는 존재인 보제기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면밀히 보여준다. 바다에서의 삶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더불어 보제기의 삶이 바다와 그 곁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경훈의 「어선부두」는 변해버린 항구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인간 군상과 붕괴되는 가족과 공동체를 보여준다. 근대화가 진행된 제주바다는 어민들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해체시키는 비극적인 장소가 된다. 바다가 변해버린 조건에는 한·일 어업협정<sup>61)</sup>도 있다. 그들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어로에 제약을 받고 목숨까지 내놓으며 어로를 해야 하는 상황과 직면한다.

① 선우는 지난밤 물소리 속에 섞여 들려오던 절규를 꿈이 아닌 생시로 듣는 느낌이었다. 덧드는 밤에 해안을 치는 놀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허우룩해지는 가슴을 어찌지 못하고 있을 때 귀가 열리면서 무색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느낀 것인지도 모른다. 멀리서 바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이 착란이 되어 육감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206쪽)

② “나는 말야, 사람이 죽었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초름한 생활을 생각해 보곤 한다. 물위에 띄워진 혈거운 생활이 더욱 혈거워져 버리는 걸 느낀다. 너는 그렇지 않나?”

관수는 황당하게 말하면서 한숨을 꺾어 내렸다.

“나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가슴이 뛰었다.”(210쪽)

61)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에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을 가리킨다. 이 어업협정은 1996년 일본이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구어업협정(1965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한일 양국은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갖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겹치는 수역을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인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상호조업문제가 타결됐다는 점에만 의미를 부여하기엔 우리 측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대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게 자망 및 장어 통발조업의 경우 일본 측의 우리 수역에 대한 조업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도 우리 측만은 연간 어획량과 출어 척수를 대폭 감축,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출어를 포기할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어민피해 최소화 하라」, 『경향신문』, 1999.02.08, 4면.)” 즉, 우리나라 근해어선들이 조업하는 주요어장의 대부분이 일본 측 수역으로 포함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이다.

선우는 귀향 5일을 남겨두고 화신호의 소식이 끊겼다는 소식을 관수에게 전해 들으며 지난밤 자신이 느꼈던 상황을 되새긴다. 바다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뱃사람끼리의 교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선우는 지난밤 육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이다.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생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삶을 부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점점 더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야 한다. 고기는 씨가 마르는데 배를 메어놓는 항구는 좁아 미어터질 지경이다. 선우도 세 달 동안 배를 타고 나서 시꼬미 장부에 기록된 선구며 음식값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니 90만 원을 손에 쥐었다.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을 번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는 배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① 선장이 발끝으로 땅바닥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선주협의회에 가는 길이야.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많은 어선들을 줄인다는구만.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맞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지. 우리지방에서는 앞으로 5년간 200척 이상을 감축한다는 거야. 육지부에서도 난리가 났어.”(212쪽)

② 뒤돌아보면 10여 년간 배를 탔다. 그러한 경력은 이제 뱃일 말고는 다른 일에 무능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 말이 왜 공포로 느껴지는가. 한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때려치우고 싶다고 큰소리치기도 하였으나 막상 일이 현실로 닥치고 보니 어둠이 깜깜 눈앞을 가려오는 것이다.(213쪽)

선우는 10여 년간 배를 탔다. 이제 뱃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으로 그를 포함하여 승선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배들은 폐선 처리비와 폐업 지원비를 지급해 주고, 선원들에게는 2개월분의 월급을 실업수당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일생의 절반 가까이를 바다에서 배를 타며 생활한 그들에게 고작 2개월분의 실업수당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우의 아내 재숙에게도 불행이 겹친다. 수협공판장 맞은편에 새로 생긴 수산시장의 사람들이 건물 앞 노점상에서 고기를 파는

여인들 때문에 장사를 망친다고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청 직원들은 도로를 무단 점용한다는 이유로 좌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좌판 장사가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재숙의 노점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짓밟힌다.

시위자들이 달려들어 널빤지를 걷어차고 여인들을 끌어냈다. 버티고 쓰러지는 여인들이 비명 소리를 내었다. 분개한 여인들이 이를 양다물고 달려들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가차 없이 얻어맞고 밀쳐졌다. 여인들은 사정없이 걷어 차여 넘어졌다.

그때 선우는 눈앞으로 불길이 확 치솟는 걸 느꼈다. 사내에 반항하던 재숙이 머리끄덩이가 풀린 모양으로 꺼들려지는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나뭇그려져 구르다가 반사적으로 몸을 옆치면서 흠뻑 젖어 버린 여인들을 끌어안았다. 재숙을 내두른 사나이는 그녀가 그러한 여인들을 심술 사납게 짓밟았다. 재숙은 사나이의 발을 몸으로 막으면서 악착스레 여물을 주워 모으려고 허우적거렸다.(216쪽)

바다는 과거의 바다가 아니었다. 공동체라는 특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밑거름이었던 바다는 더 이상 누구에게나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현재의 바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박탈의 경험만을 제공할 뿐이다. 선우의 아내도 수산시장 상인들에 의해 박탈을 경험하고 바다를 떠나고 만다. 변해버린 바다는 섬을 떠나고 싶은 욕망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상략)... 아내 재숙이 집을 나가고 말았다. 재숙이 떠나던 날 방안에는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봉투 속을 열어보니 편지가 나왔다. 선우는 눈을 비비면서 읽고 또 읽었다.

-돈을 벌어들일게요.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215쪽)

결국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재숙은 떠나고 만다. 선우에게 바다는 자신과 아내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바다는 시대적인 변화에 그들의 삶을 박탈하는 존재로 변화했다.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던 공간인 바다가 가족 외화의 요인이 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선우는 아내를 찾기 위해 신시가지 뒷골목의 주점들과 유흥업소까지 헤맨다. 그러던 중 선우는 한 사내를 만난다. 그 사내는 여수 선적의 연승어선을 탔었는데 제주항에 물건을 내려놓고 잠시 내린 사이에 배가 그를 내버려두고 떠나버려

부두에 남겨졌다. 사내는 선우에게 다소의 여비를 대주기만 하면 아내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선우는 소지하고 있던 6만원을 털어 그에게 전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적어준다.

선우가 속았던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선 다른 소리가 있었다. 어물장수 아내는 살아보고자 땅바닥을 기었다. 폭력에 맞으면서도 비린내 나는 어물을 그리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능한 남편은 어찌해야 하는가... 선우는 외지 사내의 말에 현혹이 있었다 해도 가만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저쪽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진실일 것이었다. 선우는 사나이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조요청을 받은 뱃사람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다.(227쪽)

선우는 속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과 아내 그리고 사내를 위해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우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같은 처지의 사내의 '구조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순박함을 알 수 있다.

오경훈의 「어선부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문체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순박한 보제기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변해가면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주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제주항이라는 사실적인 풍경묘사와 타자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변부 사람들의 고된 삶을 온전히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보제기들에게 바다는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죽음과도 이어진 곳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겪고 터득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생계를 이어간다. 그들에게 바다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대안이다. 또한 그들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이렇듯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보제기들은 가족과 바다와 공동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순박한 존재들이다.

## 2.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인식

인간은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공간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 특히 제주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공간은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 바다를 ‘바다밭’이라 부르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일구어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제주 해양소설에서 바다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제주 해양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의식을 통한 생활 공간’, ‘무속을 통한 기원의 공간’, ‘문화의 창달·전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 1) 공동체의식을 통한 생활 공간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처럼 살아간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들의 삶도 잔잔하고, 바다가 출렁일 때는 그들의 삶도 같이 출렁인다. 바다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운명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러나 바다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바다는 혼자서는 맞설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공동체는 바다와 공존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중요하다. 특히 섬이라는 공간은 바다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다가 섬의 일부분이기도 하기에 섬 속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는 남다르다. 따라서 제주의 경우에도 바닷가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은 각별하다.

공동체의식은 평등을 그 기반으로 한다. 약 6000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선사인들이 남겨 놓은 ‘반구대 암각화’에는 포획된 동물들을 하나같이 균등분할해 놓고 있다. 이 균등 분할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은 바다라는 공간에서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식을 싹틔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공동체의식은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해녀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제주해녀들의 공동체의식은

남다르다. 제주 해양소설에는 그런 면모가 잘 나타난다.

특히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은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조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제주해녀들은 바다에 감사할 줄 알면서, 바다가 주는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

① 깊은 물일수록 좋은 미역이 많은지라 잠녀들은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고 나이나 능력에 따라 얇은 데서 멀리 깊은 데까지 골고루 바다 위에 퍼져 작업했다. 가깝고 얇은 데는 예순 넘은 할머니들이나 열서너 살짜리 아기 잠녀들의 뒹이고 멀고 깊은 데는 숨이 길고 자맥질 잘하는 상군 잠녀들의 뒹이었다. 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군 잠녀가 ‘할망바당’(할머니바다)에 들어 물질하는 것은 철저한 금기로 삼았다. 일흔 살 가깝도록 물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잠녀들의 생활인지라 기운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 얇은 물에다 ‘할망바당’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46~47쪽)

② “바다밭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잠녀들의 사회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 바다밭의 공동소유, 공동관리를 통해 이룩된 평등사회...(하략)...”(71쪽)

제주해녀들은 나이와 능력에 따라 얇은 바다에서 먼 바다까지 골고루 퍼져 작업을 한다. 이는 바다가 주는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다밭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해녀들은 과거 선사인들이 추구한 균등 분할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녀들을 비롯한 제주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에 가까운 삶을 꾸려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바다를 대함에 있어서도 맞서 싸우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채취와 채집을 금하고, 바다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홍명진의 『숨비소리』에서도 바다를 중심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제주인들의 오래된 공동체 습성임이 확인된다.

친정에서는 미역 철이 되면 해녀들이 총동원되어 작업을 하고 미역 채취 작업이 끝나면 그 동안의 수고를 서로서로 치하하며 잔치를 하곤 했는데, 한 해 물질의 시작이고 바탕이 되는 게 미역 작업이었다. 또 물질은 아무 바다에나 들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멀리 외지로 원정 물

질을 나가는 일이 아니면 대개는 자기 마을에서 물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녀들이 작업하는 바다는 제 집의 텃밭이나 한가지라는 마을 공동체의 오랜 습속이 깃든 탓이었다.(82~83쪽)

제주해녀들은 정해진 시기와 시간에 공평하게 미역바다에서 미역 채취 작업을 한다. 바다밭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이며 공동관리 하는 공간이다.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작업은 개인적인 삶의 영리만을 위해 사사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들 공동체는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바다와 인간(공동체)이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해녀 공동체는 일본인에 의해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일본인은 해녀조합을 만들어 해녀들을 수탈하고 자본가들은 일본인과 결탁해 해녀들의 공동체적 삶을 위협한다. 이에 해녀들은 자신들의 채취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권리조차 잃어버린다. 그들은 부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는다. 이와 같은 해녀 수탈의 실상은 『바람 타는 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을 잠녀들은 이틀 동안의 집중적인 채취작업으로 거둬들인 미역을 나흘 동안 햇볕에 착실히 말려서 조합 공판장에 내다 팔았다.

시중은 말로만 듣던 잠녀 수탈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공판장에 나가보고 실감했다. 위탁판매를 맡은 조합은 이번에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조합장인 도사가 지정한 특정 왜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돈에 붙은 갓은 무명 잡세, 조합 수수료가 엄청나고 조합 서기들의 농간 또한 극심했으니, “열 놈 먹고 남은 것이 잠녀 몫이다”란 말이 조금도 틀린 게 아니었다. 잠녀의 채취물 중 9할 이상이 수탈당했다.(74쪽)

결국 수탈을 견디다 못한 해녀들의 불만은 해녀조합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동체에 대한 위협은 해녀 개인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녀들의 생업활동을 중심으로 꾸려지던 가족 구성원의 삶에도 큰 타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동의 공간 유지와 생계를 위해 제주도내에서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을 벌여온 사회운동권 사람들과 함께 투쟁을 벌인다. 그들은 공동 노력이 수탈로 위협 받는 상황과 공동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항한다.

결국 제주해녀에게 공동체는 바다와 대항하기 위해서, 일제의 수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통한 집단적 삶은 바다라는 공간이 있기에 실현되고 유지된다.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제주해녀들의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마을 잠수들은 오래 전부터 아무라도 같은 동네의 잠수가 죽으면 그녀의 장례가 끝나기까지는 물에 들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의식했건 아니건 간에 그들에게는 삶도 같이 살았으니 죽어도 공유한다는 공동체의식이 투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았다.(257쪽)

제주해녀의 공동체의식은 의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제주해녀들의 의례 행위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해녀의 의식세계에 내재된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박하며, 생존을 위해 공간을 공유하던 이가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그의 생존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의 발로인 것이다. 바다는 위험천만한 존재이다. 어떤 때는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리다가도 때론 풍요로 가득하여 삶의 희망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죽음도 공유하는 그들만의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sup>62)</sup>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결집된 공동체의식은 해녀뿐만 아니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마을 사람 전체에게서도 나타난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귀향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 마을 마을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일임을 보여준다.

① 그리고 이튿날은 새벽같이 우리 뱃동서네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바닷가를 뒤지는 작업을 시작했다. 바다는 누워있던 해면이 성이 나서 일어난 것처럼 곧추 서있고 허영

62) 위와 같은 해녀들의 공동체의식은 잠수회칙에서도 드러난다.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와 성산리의 잠수회칙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강령이 있다.

...(상략)... (4) 잠수회원이 세상을 떠나면 잠수회에서 장례행렬을 운구하고 개뉘이를 한다. (5) 물질도중 잠수가 변을 당하여 사망하면 시신을 수습하고 (4)와 같이 한다. (6) 만일 물질도중에 변을 당하여 잠수가 실종되면 생사를 확인하고 사망시신을 찾아 수습하여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물질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 (7) 마을 안에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잠수회의 결의에 따라 물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 이와 같은 사유로 혹은 다른 사유로 잠수회 결의에 따라 물질을 하지 않기로 설정된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물질을 하였을 때, 잠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한림화, 앞의 글, 85~87쪽 참조.).

다 못해 누른 빗갈까지 띠고 있었다. 파도는 바다 속에 있는 용이나 그 비슷한 짐승이 성을 내서 발광하는 듯 으르렁거리며 밀려오고 밀려오곤 했다.(204쪽)

② 배도 깨지고 사람도 죽었다는 전제 아래 그 흔적이거나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때 당사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다.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어디에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했으면 시체나마 찾게 되기를 바라는 모순된 생각. 이런 갈등을 안고 사람들은 한나절 바닷가 바위너 설을 배회했다.(205쪽)

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 누군가의 실종은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벗어난 마을 전체의 걱정이다. 섬을 뒤덮을 만큼 큰 파도의 위협은 바닷가 사람들이라면 너나없이 느껴왔을 두려움이다. 바다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은 그들에게 동질의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동료와 같은 심정이 된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확인하는 일에 함께 나서게 되는 것이다.

...(상략)... 바람도 거세고 물결도 거칠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들은 필시 뭘 일이 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바람이 불고 이틀 후에 그들의 것이 틀림없는 부러진 돛대가 마을 바닷가에 떠오르자 그제는 그 배가 육을 본 게 틀림없다고 낙망들을 했다. 마을 앞 바다를 돌며 시체 찾기 작업을 벌였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사흘째 날은 아예 먼 마을까지 탐색작업을 나갔다. 한 무리는 동쪽으로 저 성산포에서부터 수소문을 하며 바닷가를 돌고, 한 무리는 대정, 안덕 근방까지 나가서 수소문을 했다.(206쪽)

조류가 대개 일정한 장소에 파선한 배나 시체를 날라다 놓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바닷가 사람들은 거의 모든 마을 장정들이 나서 시체라도 찾으려는 심정으로 주변 마을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 대개는 실종된 사람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수색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닷가 사람들은 다르다. 이미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음에도 시체라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또한 「보제기들은 밤은 떠난다」에서는 삶을 초월한 공동체의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규 씨의 부인을 통해서 절실히 드러난다. 평소에는 말 한 마디 없고, 순종적이던 두규 씨의 아내가 김씨 가문 문장 어른의 ‘밖에서 죽은 시신은 집안엘 들이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는 지엄한 주장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녀는 “범이고 뭐고 한 평생 바다에서 추위에만 떨던 남편을 죽어서까지 한테서 떨게 내버려뒀다가 묻을 수는 없다”(218쪽)고 생각했다. 결국 장례절차를 논의한 끝에 문장 어른은 시신을 마치 산 사람처럼 집안으로 모셔들이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장례 진행을 허락한다.

이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두규 씨의 시신은 극성스런 그 부인의 품에 안겨 마당에서 마루를 거쳐 두규 씨 내외가 생전에 거처하던 큰구들로 들여지게 되었다. …(중략)… 그 부인은 자꾸만 구겨지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안으며 산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거는 것이었다.

“길남이 아버지, 양? 길남이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했수다. 어서 들어왕 시령을 의지해영 았읍서. 나가 죽을 때오크메 따뜻한 죽 한 사발 들영 가십서.”(219~220쪽)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음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살아있는 자와 함께 기능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오성찬은 이 장면을 통해 바다라는 공간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이어지며, 동시에 연속적인 삶을 형성해 주는 공간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에서도 나타난다.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억순이를 통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바다를 통해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남편, 제사만큼은 제사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싶었다. 남편의 넋을 달래는 일은 곧 바다에 대한 치성이라 생각됐다. 용왕님을 위하는 일이라 믿었다. 남편의 뱃노래가 깔려 있는 뱃길을 닦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억순이 자신의 물길을 닦는 일이라 생각했다.(137쪽)

억순이에게 남편 제사를 잘 차리는 것은 남편의 넋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비록 바다가 그녀의 남편을 앗아갔어도 그녀는 바다를 통해 남편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공동체의식은 여타<sup>63)</sup>의 해양소설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식과는 궤를 달리한다. 즉 배라는 인위적이면서 한정적인 공간에

63) 여기서 말하는 여타의 해양소설은 어선이나 상선을 중심으로 해양 생활을 하는 선원 집단을 형상화한 해양소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 이루어지는 집단생활에서 비롯된 공동체의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배라는 공간에 모인 선원집단의 공동체의식은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들이 집단을 이룬다. 집단은 만선 또는 그 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해녀 집단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영리가 우선시 되지 않는다. 나보다 부족한 자를 먼저 배려하며, 공동체집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이 작업하던 해녀가 죽으면 며칠간 물질을 하지 않는 것은 생과사를 떠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온 동료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남다른 것을 보여준다. 보제기의 경우도 그렇다. ‘뱃동서’라고 불리는 동아리의 구성원들은 그 가족까지도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낸다. 또한 보제기 중 누군가가 해상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면, 시체라도 찾기 위해 인근 마을 해안가와 먼 마을의 해안가까지 마다하지 않고 수색한다. 이처럼 보제기들에게서도 생과사를 떠난 유대관계는 확인된다.

요컨대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해녀와 보제기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의식은 토착적 공동체의식인 것이다.

## 2) 무속을 통한 기원의 공간

바다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들로서는 바다에 대항하기 위해 미지의 구원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바다엔 바다만의 특이한 생활양식이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게 마련이다.<sup>64)</sup> 바다와 관련된 삶의 기반에는 무속이 깊숙이 배어들어 있다. 우리는 유교적 인식하에 바다와 어우러진 삶을 천시해 오고 바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지녀왔다. 그러나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삶에도 무속이라는 원초적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주바다에는 영등할망<sup>65)</sup>이라는 초월적 힘을 가진 대상이 존재한다. 영등할망

64) 김정하, 앞의 책, 14쪽.

65) 영등할망은 한반도의 해안지방에서는 풍신(바람신)으로서의 개념이 강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해산물이나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농신으로 더 알려진 신이다. 구전에 의하면,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룻날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 다음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부터 시작하여 제주 곳곳을 돌며 봉송화꽃·동백꽃 구경을 한다. 그리고는 세경 너른 땅에는 열두 시만국 씨를 뿌려 주고, 갯가 연변에는 우뭇가사리·전각·편포·소라·전복·미역 등을

은 제주 바다와 어민들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영등할망을 위한 무속의례인 영등굿도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에서는 영등할망에게 바다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 사설이 나온다.

“...(상략)... 오늘이 신미년 영등 이월 열 사흘날, 어느 고을 백성이 이 축원을 여쭙느냐 하면, 제주섬 동끝 구좌면 세화리 구차한 잠녀 백성들이 되웁네다. 연유 말씀 여쭙기는 다름 아니라 영등할마님, 제주 산천 산 구경 물 구경 꽃 구경 오시는데, 물질하는 세화리 잠녀들, 모두 불쌍한 할마님 자손 아님네까. 부디 재수사망 일게 하여 주십사 원정을 올리는 거우다. 무쇠술에 화식(火食) 먹는 인간이 무엇을 아오리까.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옷 입으면 등 따스운 줄이나 아는 인간, 무슨 철이 있습니까. 과연 살려주십서. 앓아 천리 보고 서서 만리 보는 영등할마님, 오곡씨 미역씨 많이 많이 주고 갑서. 전복 소라 우무 청각씨 풍족히 주고 가십서. 앞바다에 가는 고기 오는 고기 흥청망청 몰아다 줍서. ...(중략)... 배 타는 자손들, 모진 풍파 막아 줍서. 왜놈 머구리배 막아줍서. 왜놈 켄자꾸배도 막아줍서. 어허, 바닷속 돌끝마다 미역 천초(우무) 전복 소라 풍성하고, 조 농사 보리 농사 콩 농사에 씨를 많이 붙여 이 자손들 혼전만전 먹고 쓰고 남게 해줍서. 미역씨 천초씨 주고 갑서. 소라 전복씨도 주고 갑서. 오곡 씨앗도 주고 갑서. 자, 씨 뿌리러 가자. 애 잘 낳고 물질 잘하는 상군(上軍) 잠녀들 나오너라.”(7~8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해녀들의 세계가 잘 드러난다. 해녀들은 샤머니즘 안에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기층민중의 삶이다. 바다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바다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자신들의 편에 서야 한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인 것이며, 무속신앙인 것이다.

마을 잠녀들은 영등할망이 섬에 머무는 보름 동안 관례대로 바다 물질을 하지 않고 보리밭에 김을 매거나 갯가 바위에 붙은 툇나물을 캐거나 했다. 물속의 미역밭은 아직 파릿파릿 어린 미역들이라 채취 못하게 금하고 있고, 소라 전복을 잡으려고 해도 셋바람 치는 바다는 물속이

---

많이 자라게 씨를 뿌리고는, 2월 15일경 우도를 거쳐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來訪神)이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부르며 영등굿을 벌여 영등할망을 대접하는데, 초하룻날은 영등할망을 맞는 영등 환영제를 하며 12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영등할망을 보내는 영등 송별제를 연다. 곳은 주로 마을 단위로 행해지며 어업이나 농업에서의 풍요를 기원한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흐려 찬물에 벌벌 떨며 물질을 해봐야 번번이 헛물만 켜고 빈손으로 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잠녀들은 이때 전복, 소라가 안 보이는 것은 영등할망이 까먹어버려서 그렇다고 믿었다. 보름 동안 섬 해변을 한 바퀴 돌며 소라, 전복을 까먹던 영등할망이 바람등을 타고 강남으로 떠날 즈음에는 이별의 눈물인지 소라, 전복 먹은 값 하려고 그런지 곧잘 단비를 흠뻑 뿌려주곤 하는데, 이번에도 새칠 들어 처음 흡족하게 비가 내렸다. 비는 겨울 가뭄으로 시달린 대지를 축축히 적셔주었다. 먼 산의 목장에 타던 화입불도 꺼지고 한 뼘 길이로 자란 채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새들새들 가뭄 타던 보리밭도 생기를 되찾았다.(9쪽)

제주해녀들은 영등할망을 깎듯이 모신다. 그들은 영등할망이 섬에 머무르는 보름동안은 바다에 들지 않는다. 영등할망이 들어올 때는 환영제를 하고 나갈 때는 송별제를 치른다. 이것이 자신들의 바다를 풍요롭게 해주며, 해상에서의 위태로운 목숨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도 이러한 영등할망과 섬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섬에서는 음력 2월 ‘영등달’에는 각각 곳은 하늬바람이 매양 불고 날씨도 구저분했다. 그리고 이 달에 섬에는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얼마간 머물다가 떠난다고 했다. 이 달 초하루에 한수리라는 갯촌으로 들어와서 보름에 섬 끄트리 작은 섬인 쇠섬으로 떠나간다. 섬사람들은 이 기간에는 바다에도 안 들고 빨래도 안 했다. 이 기간에 빨래를 하면 빨래에 구더기가 인다는 말을 나는 어려서 할머니로부터 들었다.(297쪽)

‘바다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등할망이 소라도, 전복도, 미역도 그 씨앗을 다 뿌려주고, 바다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니 위할 수가’ 없다. 이렇듯 제주바다라는 공간에서는 제주바다와 영등할망, 영등곳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제주바다에는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곳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하는 무혼곳도 치러진다. 바다를 대상을 치러지는 무혼곳은 제주바다에 사람의 생과 사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이런 무혼곳의 모습은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 잘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치러지는 무혼곳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정말로 내세는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내세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하다가 애꿎게 죽은 영혼들이 억울해서 어쩔 것인가. 섬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제 갈 길로 가지 못하고 원혼, 잡귀가 되어서 영계도 아니고 속계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세계에서 떠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런 원혼이 생기면 이들을 달래어 제대로 된 영계로 보내드리는 무혼굿이 벌어진다. 바닷가의 우리 마을은 바다에 빠져 죽는 원혼들이 많아서 일년 사시절 무혼굿 안 벌어질 날이 없었다.

다새 장으로 두규 씨의 시신을 감장하고 나자 다음번엔 아버지의 영혼을 건져내어 위무하는 무혼굿 차례였다. 무혼굿은 그 가족이나 이웃들이 죽은 이의 혼을 달래어 좋은 국으로 보낸다는 목적으로 벌리고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살아 남은 자들이 스스로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고 풀고자 함이라는 걸 이내 눈치 챌 수 있었다.(221~222쪽)

아버지, 허장의, 두규 씨 중에서 유독 아버지는 배 임자인데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기에 마을 전체가 떠들썩하게 무혼굿을 치른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의 무혼굿을 치르는 과정에서 심방은 원한 맺힌 귀신이 있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며 그 원혼을 찾아 위무해야 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죽음을 억울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그렇기에 살아남아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도 액을 막거나 탈이 없기를 바란다.

① “하이고, 맞다. 맞다. 나 육춘 중에 저어 일본 구주지방엘 갔다가 물에 빠전 죽은 이가 하나 있져.”

“거 봅서. 니가 무신 말을 험디가? 요 나 할망아, 아무리 날 속이려 해도 속이질 못합니다. 이 참에 속 시원히 토과를 해버립서. 가슴에 맺힌 한은 원이 되고 뺨이 됩니다. 하이고 나 할망아, 그 육춘 죽은 시체를 이제까지 가슴에 묻언 살았구나…….”(282쪽)

② “쭈어나라. 얼썬! 쭈어나라. 얼썬! 이제 하나 원귀는 퇴치가 되고 나머지 또 하나 원귀가 있져 한다. 그 원귀를 마저 쫓아야 집안이 고무족족 펜안하다 한다. 그 원귀를 찾아내라. 얼썬, 그 원귀가 누구 원귀냐?”(285쪽)

③ “꺄세우다, 어머니. 혹시 그 바당 다룰 때 호미에 맞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우리 사춘 오라버니나 한가 원?”

“그런 사름이 이시냐? 게민 그럴 범 허다. 바당 일로 죽어시민 그것도 원귀가 될 만허다. 그 사실을 말해볼라.”(285쪽)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은 원귀가 집안에 우환을 가져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다고 여긴다. 그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삶과 죽음의 운명도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식한다.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죽은 자의 혼령을 두려워하는 마음 보다는, 죽은 자들의 원한을 달래 화해를 도모하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원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무혼굿을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바다와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는 무속(굿)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한다. 이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토대에는 무속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바다와 인간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바다와 무속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다음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현대문명 속에서 날로 이질적인 문화에 잠식되어가면서 전통문화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부감해내고자 할 때, 우리는 바다와 관련된 우리 민속부터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sup>66)</sup> 그만큼 제주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무속의례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무속이 바다라는 공간을 인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주 해양소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3) 문화의 창달·전수 공간

제주해녀뿐만 아니라 보제기에게도 바다는 땅의 밭과 같은 존재였다. 바다밭은 땅의 밭보다 생존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밭을 대함에 있어서도 땅의 밭과 동일시했다. 그들은 바다밭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문화를 창달하고 전수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고는 해양소설의 경우 대개 바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66) 김정하, 앞의 책, 87쪽.

67) 해양소설에서 이러한 해설체의 설명은 서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태를 설명의 방식으로 처리해서 독자들에게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보제기들 나름의 통과의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이 익히면서 만들어 나가는 바다문화를 대를 이어 전수함으로써 보제기의 삶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나 이름? 우식이.

-옳지. 우리 손지 똑똑하구나. 너한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 바닷밭에도 다 이름이 있는 거라. 그걸 몰랐지?

-응.

-이 사름이, 모르민 되는가? 바닷을 의지하고 사는 사름덜은 그런 걸 모르민 안 되지.

...(중략)...

-할아버지, 저렇게 큰 바닷이 하나뿐인디 무신 이름이 여러개라?

...(중략)...

-으음. 바닷이 저거 하나뿐인 거 같지? 허나 바닷엘 나가 보면 저디도 다 발덜처럼 구획이 지어져 있는 거라. 그걸 넌 아직 어려서 몰라.(241~242쪽)

할아버지는 어린 우식에게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이름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바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의 이름은 중요하다. 바다에서는 위치를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 바닷밭의 이름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바닷밭에 이름을 붙여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자신이 예전에 체험했던 어장을 찾는 데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바다에 이름을 붙여 그 나름의 ‘가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수한다. 할아버지도 어린 우식을 이해시키기 난감했지만, 바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우식에게 바닷밭의 이름들을 일러준다.

① -저기 바닷 이름이 막바우니라. 바위의 끝이란 말이다.

② -그럴 듯하지 않으나? 옛날 어른들이 배우진 못했어도 지혜는 그만이었느니라. 양아, 요새 사름덜이 따라가길 허구. 어딜!

③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바닷이 파랑기도 하고 알락달락한 그런 디가 있어. 그디가 매통이라고도 허고 애여리라고도 허는 맛좋은 고기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 바닷 이름이 매통

---

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서사에 비해 해양 서사는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옥태권, 앞의 책, 172쪽 참조.).

이 바당이여. 애여리바당. 잘 알아뉘사 해여.

④ -그 다음 저기, 퍼렁한 바당이 보이지? 넓찍하게. 저기가 바닥에 모래, 모살이 깔려서 저런 거라. 경해서 저 바당 이름이 모살밭인 거라. 모살밭.

⑤ -그 다음은 밋이나? 그 다음은 물이 깊지도 얕지도 않은디 바닥이 아주 평평한 바위너 설이라. 빌레바당. 물 속이 그러니 물 위도 파도가 잔잔할밖에. 딴 바당에 절이 셀 때도 이 방에만 오면 언제나 바당이 잔잔하니까. 경해서 이 바당 이름이 지름바당이라. 그럴 듯 허지? 어찌냐?

⑥ -지름바당 너머는 그디가 이디서 보기엔 물마루 옆, 바로 수평선 아니냐? 그러니 그디 이름이 마루에염이지. 알겠느냐?

-예. 알아지크라마썸.

-에에 나 손지 똑똑허다. 너도 자라면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거여. 틀림없고 말고. 물마루를 지나면 그제는 또 바당이 아주 깊어. 그래서 그디가 깊은목이고, 그 다음은 고장낭밭, 고사리밭, 그러는디 그것이 무신 말인가 허면 그 바당에서 저 산허리의 꽃밭과 고사리밭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여. 알겠느냐?

⑦ -그 밖에는 아주 깊은 바당인디 앞곶, 뒷곶이라고 허지. 그 바깥은 저 아득한 큰섬이여. 어찌면 그 더 멀리에는 외눈배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지.(242~244쪽)

위 ①~⑦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사람들이 지칭하는 바다밭의 이름들에는 나름의 뜻과 논리가 숨어 있다. 오성찬은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지혜를 바다밭의 이름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sup>68)</sup> 이렇게 경계도 넓이도 측량하기 어려운 바다를 육지의 밭처럼 생각하고 구분하는 것은 바다와 땅을 하나로 잇는 인식의 발로이자, 바닷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절실함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방법이다.<sup>69)</sup> 오성찬은 제주 바다만의 고유하고 사연 있는 이름들이 차츰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나 바다는 그 고유의 속성처

68) 오성찬이 적고 있는 바다밭의 이름들은 작가의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바다밭의 이름을 실제로 바닷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산과, 좌우 사방을 둘러보고 가능하여 이름을 붙인 '바르팻(바다밭)'의 이름이 해변에서부터 관탈(冠脫)까지 열 다섯이나 됐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늘이 내려준 그들 자신의 재산 관리에 충실했던가 하는 점을 시사해주는 놀라운 일이었다. 해변 바위 끝이 막 떨어지면 ① 막바우, 그 조금 더 나가면 애여리(메통이)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② 애여리바당, 모래와 물 속 바위가 어울어진 곳이 ③ 개여린 것, 물 속 바위 끝이 ④ 눈미곶,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기름바다 같이 잔잔해지니까 ⑤ 지름바당, 그 다음은 수평선이 가까워져서 물마루 같다는 뜻에서 ⑥ 모루에염, 그 다음은 흙썩 깊으니까 ⑦ 깊은목, 그 다음은 한라산의 연뎃돌을 가늠해서 ⑧ 연디바당, 그 다음은 ⑨ 대섬바당 → ⑩ 눈목곶 → ⑪ 고장밭(이상 바닥에 모자반이 많이 있는 곳) ⑫ 고사리 곶(고사리가 많이 나는 산의 지경을 '고사리곶'이라 부르기도 함), 그 다음이 ⑬ 앞곶 → ⑭ 뒷곶(곶은 '고지'의 준말로 고지(高地)의 의미도 있다), 그 다음이 관탈이다(오성찬, 「숫는 썸, 즐편한 들 섬의 머리마을 道頭里」, 『제주도』 통권 제79호, 1985, 199~200쪽).

69) 최영호, 「한국 해양 소설 연구-현대 소설에 묘사된 바다를 중심으로」, 11~12쪽 참조.

림 대를 이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는 제주 보제기들의 어로 형태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제주 보제기들의 어로는 대체로 연근해 또는 갯가에서 이루어진다. ‘원’을 이용한 어로 방법 또한 연근해 어로로 원시어로의 한 형태이다.

① 해풍이 바랜 초가 지붕들이 납작납작 엎드려 있는 동네의 해변에는 검은 현무암의 바위 너설 사이에 군데군데 둥그렇게 원담이 둘러 있었다. ‘원’은 바닷가에 한아름씩은 되는 돌담으로 낮은 성담 모양 반원형으로 쌓은 것인데, 밀물에 몰려온 고기들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에워싸 잡는 순 원시적 어로방법이었다.(228~229쪽)

② 우리 마을에는 고기를 에워잡는 원도 동네마다 있었는데, 천연적인 원은 없고 모두 인공적인 원이었다. 마을 경내 해안가를 따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욱 ‘벨원’, ‘우럭원’, ‘복쟁이원’, ‘섯동네원’ 등이 그것이었었는데, 대개는 원에 잘 드는 고기 이름을 따 이름을 지었으며 원담의 길이는 대개 오십 발췌, 그리고 원 안의 넓이는 이십 평 내지 서른 평쯤이 되었다. 이들 네 개의 원의 경우 해당되는 동네에서도 원담을 쌓고 또 원담이 파도에 밀려 허물어졌을 때 보수하는 일에 동참한 동네 사람만이 원안에 든 고기를 잡을 자격이 있었다. 보통 한 원에 참여하는 동네 사람은 대개 스물이나 서른 명쯤, 그들은 스스로를 계원이라 부르고 그만큼 서로간에 친밀감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렇듯 동네의 원 외에도 개인이 쌓아서 차지한 원이 있었으며, 고기가 잡힐 철에만 일시 담을 쌓아서 고기를 잡는 일시적인 원도 더러 있었다.(268쪽)

①은 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②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②에서 보면, 우식이도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갑생이원’에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 그 방법은 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바다로 데리고 가서 가르쳤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원’ 안에서 대를 이어 자신들의 문화를 전수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원’을 통해서 바다와 사람은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운다.

제주해녀들에게서도 바다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전수하며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은 자신들만의 질서와 서열<sup>70)</sup>을 준수하며 해녀

70)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서열에 따라 계층별로 구분된다. 해녀계층은 하군·중군·상군으로 구분되지만, 상군 가운데도 특출하게 뛰어난 해녀를 대상군이라 한다. 물질이 극성스런 마을에서도 대상군해녀는 드물다. 대상군해녀는 해안마을의 ‘왕자(王者)’로 군림하면서 해녀집단의 부러움을 한몸에 모은다(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92~93쪽 참조).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는 해녀라는 직업 자체가 고도의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의 어로행위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건물 생심에 기인한 욕심은 작업 중의 사고와 직결된다. 해녀들은 작업 중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서열에 따라 미숙련자를 숙련자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 선상 생활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선원 집단이 그들만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전승시켜 해상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해녀 집단도 자신들만의 질서와 서열을 만들어 전수시키면서 해상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바다는 삶의 터전이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이 된다. 바다에서의 삶은 오랜 기간 겪어왔던 경험을 통해 지혜로 결집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된다. 그렇기에 바다에서의 삶은 윗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 없이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와 문화를 후대에게 전수해 주려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은 바닷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주 해양소설에는 이러한 공간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 Ⅲ.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

지금까지 제주 해양소설의 양상을 체험 주체와 공간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작업은 궁극적으로 제주 해양소설이 다른 지역의 해양소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해양소설이 지닌 특징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다른 지역의 바다에 등장하는 주체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며, 작품 속에서 공간이 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이며, 또한 각각의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 해양소설의 서사에 나타나는 주체는 타 지역 해양소설과는 달리 주로 여성이 등장한다.

앞에서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홍명진의 『숨비소리』, 오성찬의 「어부들」·「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어선부두」를 중심으로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주체를 제주해녀와 보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해녀의 삶은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보제기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주바다가 주로 제주해녀들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 지역의 해양소설이 보편적으로 남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제주 해양소설의 공간이 주로 여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면모다.

바다는 거친 곳이며,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고되다.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원집단의 경우도 바다와의 싸움에서 진을 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양소설의 주인공은 남성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표류하는 이어도」, 『바람 타는 섬』<sup>71)</sup>, 『숨비소리』에서 볼 수 있듯이

71) 최영호도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은 해양문학이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이, 그것도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역척 여인을 주인공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제주 해양소설의 경우는 주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제주바다는 타 지역의 바다와는 달리 여성을 바다 공간의 주체로 인식한다.

육지와는 달리 남성이 여성을 노골적으로 ‘이등성(二等性)’으로 취급하거나 생활권의 예외적인 존재, 혹은 보조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등한 생활권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공유하는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sup>72)</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에서의 여성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주여성들은 타 지역의 여성에 비해 매우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다.<sup>73)</sup> 이는 「표류하는 이어도」에 등장하는 역순이, 『바람 타는 섬』에 등장하는 여옥, 순주, 영녀, 정심 그리고 『숨비소리』에 등장하는 ‘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존재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제주 해양소설에 등장하는 주체는 주로 여성임을 확인했다. 제주 해양소설에서 주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제주바다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주체들이 제주해녀이기 때문이며, 제주에서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대한 일을 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해양문학에서 해녀의 존재에 대해 간과해 왔다. 이는 기존의 해양문학에 대한 논의들이 선원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해양문학에서 볼 때 그런 관점은 매우 잘못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녀의 어로행위는 단순한 가정경제의 차원을 벗어나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큰 경제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구에서의 상선이나 어선들로 인한 경제 영향과 비견될만한 일이었다. 또한 해녀 공동체의 서열에 따른 조직은 선원들의 계급 조직과 같이 기술을 전수하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녀들도 선원들과 같은 해양 직업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그 가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세계 해양문학에서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경우라고 하고 있다 (최영호,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21쪽).

72) 한립화, 앞의 글, 30~31쪽.

73) 정광중, 「제주여성의 노동공간」,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2007, 162쪽 참조.

앞으로 해양을 연구함에 있어서 제주해녀를 해양문학의 한 주체로 인식하고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녀야말로 해양문학의 저변을 풍부하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 해양소설의 바다 공간은 주로 연근해(앞바다)를 주 무대로 삼고 있다.

제주 해양소설은 대부분 연근해를 주 무대로 바다와 인간의 삶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제주 해양문학에서 해녀의 비중이 큰 점과 관련이 있다. 제주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주로 연근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제주해녀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미역 채취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제기들의 어로도 대체로 연근해 또는 갯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로방법을 통해 행해진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 보여주는 ‘원’을 이용한 어로방법도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원시어로의 한 형태이다. 아울러 제주 해양소설에 등장하는 보제기들은 대체로 근대화가 이뤄지기 전인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주 해양소설의 주 무대가 연근해인 점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체험은 낭만적일 것이라는 사고가 형성되어 있었다. 타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소설가 천금성을 보더라도 이는 확인된다. 그는 작품에서 철저하게 선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집중한다. 그가 작품에서 선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해양소설에서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배경하기 위함이다. 선원 집단의 경우는 먼 바다에서의 이루어지는 항해의 체험을 위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바다와의 투쟁이 더욱 절실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체험은 비교적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낭만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해녀와 보제기들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그들의 삶에서도 바다에서 위험에 맞서며 투쟁하는 치열한 삶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근해에서의 해양 체험이 낭만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들은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제주해녀와 보제기들의 진정한 삶을 호도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공간인 연안역은 해양 체험이 절실히 들어나는 공간이며, 바다와 육지, 바다와 인간, 바다와 삶의 거리를 가깝게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구실을 한다. 이는 서술 주체가 선

원의 삶과 해양(먼 바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여타의 해양소설에 비해 제주 해양소설이 독자수용의 측면에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능도 한다. 원양어선이나 상선에서의 선원들의 삶은 비밀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경한 서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 해양소설은 하위문화<sup>74)</sup>로써 제주바다를 둘러싼 문화의 양상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특히 『바람 타는 섬』과 『숨비소리』에는 제주해녀와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매우 잘 드러나 있다. 제주의 생업 담당층<sup>75)</sup>이었던 제주해녀들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존재들이다. 특이한 나잠수 작업, 신앙, 노래, 사회조직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공동체적인 사회적 행위로서의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다. 매사 공동 논의를 거치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판매한다. 또한 그들은 능력이나 나이에 따라,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

또한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제주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해녀들은 같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죽으면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바다에서 동고동락한 삶이 물에서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연명해 갔던 그들에게는 죽음도 함께 공유한다는 특별한 공동체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다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문화이다.

『바람 타는 섬』과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제주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샤머니즘 문화도 보여준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에는 운명을 주관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관념해왔다. 원초적으로 바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바다에 매어 살아온 제주사람들에게 바다는 삶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바람 타는 섬』과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는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형성된 영등굿, 무혼굿 등의 실상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제주바다에 녹아있는 초

74) 하위문화는 한 사회에서 정통적·전통적인 위상을 지닌 문화에 대해, 그 사회의 일부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위상을 지닌 문화를 가리킨다.

75) 한림화, 앞의 글, 40~43쪽 참조.

월적인 존재인 신은 바닷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를 통해 신, 혹은 죽은 영혼과의 결연과 화해, 그리고 그런 신령들의 비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끼리의 평등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정립된다.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희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 같이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차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바닷 위에서 마을의 정통성을 확인, 계승하고 자주적 의지력을 키우며, 유대와 단합을 약속한다.<sup>76)</sup>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속은 신 또는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과의 화해를 이끌어 내며 동시에 현실의 평안을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무속이 바닷가 마을과 주민들의 유대와 단합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무속의 바닷 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해양소설에서는 이런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제주바다는 제주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양소설은 바다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의 도식에 맞춰져 이루어진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하나의 틀에 맞춰 해양소설을 논의하는 것은 바다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바다가 진정한 바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 삶에 스며든 이후의 바다를 간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바다는 인간의 삶에 스며든 후, 내면화되고 재구성되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바다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며, 제주 해양소설에서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

76) 김정하, 앞의 책, 122~123쪽.

## IV. 결론

이 연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제주 해양소설에 주목하여,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제주바다만의 특징을 담은 제주 해양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논문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제주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현대문학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의 제주 출신 작가들의 소설 중 해양체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로 한정하였다. 대상 작품은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1980),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1989), 홍명진의 『숨비소리』(2009), 오성찬의 「어부들」(1971)·「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2000), 오경훈의 「어선부두」(2005) 등 6편이다.

본문에서는 위의 6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제주 해양소설을 체험 주체와 공간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주 해양소설의 체험 주체는 ‘제주해녀’와 ‘보제기’로 구분된다. 「표류하는 이어도」, 『바람 타는 섬』, 『숨비소리』에 나타나는 제주해녀들은 육지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제주해녀들은 바다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 바다와 육화되어 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부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어선부두」에 나타나는 보제기들은 제주바다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순박한 존재들로 나타난다.

제주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인식은 ‘공동체의식을 통한 생활 공간’, ‘무속을 통한 기원의 공간’, ‘문화의 창달·전수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공동체의식을 통한 생활 공간’에서는 제주바다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주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은 여타의 해양소설에 나타나는 공동체의식과는 달리 토착적 공동체의식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속을 통한 기원의 공간’에서는 제주 해양소설에서 바다와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속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바다와 인간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의 창달·전수 공간’에서는 바다가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각각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제주바다는 문화와 역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공간으로 인식되며, 여타의 해양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 해양소설을 체험 주체와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제주 해양소설의 서사에 나타나는 주체는 타 지역 해양소설과는 달리 주로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제주 해양소설의 바다 공간은 주로 연근해(앞바다)를 주 무대로 삼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제주 해양소설은 하위문화로써 제주바다를 둘러싼 문화의 양상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주 해양소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제주사람들의 삶에 제주바다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바다에는 제주 해양소설이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류는 바다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인간은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해양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제주바다가 삶과 매우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었기에 제주바다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바다에는 제주 해양소설이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속에 녹아있는 제주해녀들의 삶과 바다는 해양문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해녀들의 삶은 우리의 해양문화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해양문화 연구의 현재성이 제주 해양소설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 해양소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제주 해양소설의 과제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제주 해양소설의 발굴 및 정리이다. 이는 해양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양문화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제주 해양소설의 발굴과 정리에 맞추어 개별 작품에 대한 자세한 연구의 축적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주적인 해양소설의 적극적인 창작이 필요하다. 물론 넓게는 한국적인 해양 환경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작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만

의 독특하고 특별한 해양 환경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작품도 필요하다. 제주가 해양문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보고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제기와 관련된 작품이 아직 극히 미미한 미개척 영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기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해녀들과 관련해서도 최근의 현실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 특히 해녀 수 감소 및 작업환경 등의 변화와 같이 최근 해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는 제주 해양소설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현대소설 중에서 그러한 범주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다루었다. 그 결과 논의 자체가 다소 평면적·피상적으로 흘러버린 면이 있으며,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제시된 자료와 논의들은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제안적인 것이며, 이 연구는 제주 해양소설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 해양소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의 외연과 내포가 더 깊고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 오경훈, 「어선부두」, 『제주항』, 각, 2005.
- 오성찬,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2001.
- \_\_\_\_\_, 「어부들」, 『오성찬 문학선집』 1, 푸른사상사, 2006.
-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 홍명진, 『숨비소리』, 삶이 보이는 창, 2009.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 강영봉·김동윤·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010.
-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정하, 『바다를 담아낸 소설과 민속』, 전망, 2005.
- 김중건, 『<구인회>소설의 공간설정과 작가의식』, 새미, 2004.
- 옥태권, 『해양소설의 이해』, 전망, 2006.
- 이세경, 『한국 현대시의 공간 인식』, 청동거울, 2007.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개정 2쇄).
- 조규익·최영호 편, 『한국해양문학선집』(전8권), 한국경제신문사, 1995.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제주해역』, 경인문화사, 2002.
- 현평효 외, 『제주어사전』(개정증보), 제주특별자치도, 2009.

황을문, 『해양문학소요』, 전망, 2001.

## 2) 논문 및 평론

강영기, 「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 『영주어문』 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구모룡·김정하,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

\_\_\_\_\_,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영화, 「제주 바다와 문학」, 『영주어문』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

김정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해양관과 ‘섬’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노창수, 「전남 지역 해양문학의 뿌리와 그 현황」, 『국어교육』 92호, 한국어교육학회, 1996.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 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안성길, 「울산의 해양문학」, 『사림어문연구』 제19호, 사림어문학회, 2009.

오성찬, 「솟는 샘, 즐편한 들 섬의 머리마을 道頭里」, 『제주도』 통권 제79호, 1985.

\_\_\_\_\_, 「나의 소설에서의 섬과 바다」,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오름, 1999.

오세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바다>」,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윤치부, 「한국 해양문학 연구—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이경주·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이용욱, 「표해설화고」,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이원규, 「인천의 바다와 현대문학」, 『동서문학』 제25권 제4호, 동서문학사, 1995.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의 지평」,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정광중, 「제주여성의 노동공간」,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2007.

- 정병욱, 「‘표해록’에 대하여」,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최갑진, 「한국 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최영호,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_\_\_\_\_, 「한국 해양 소설 연구—현대 소설에 묘사된 바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몸, 공동체적 삶의 원형—오성찬의 소설 ‘바다’를 중심으로」,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2001.
- \_\_\_\_\_,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43호, 한국한문학회, 2009.
-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과 문학의 본질성」,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오름, 1999.

### 3) 기타자료

- 「어민피해 최소화 하라」, 『경향신문』, 1999.02.08, 4면.
-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Abstract>

## A Study of Jeju Maritime Novels

Oh, Eo-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Jeju maritime novels which we haven't recognized properl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maritime novels and furthermore identify the meaning and value of Jeju maritime novels containing Jeju special features.

The subjects of this paper are limited to works in which maritime experience appeared prominently among novels written by writers from Jeju since 1970s when the modern literature began in earnest in Jeju literature history. The subjects are a total of six novels such as Ko, SiHong's "*drifting Jeodo*(표류하는 이어도)" (1980), Hyun, GiYoung's "*Island riding the wind*(바람 타는 섬)" (1989), Hong, MyungJin's "*Sumbisori*(숨비소리)" (2009), Oh, SeongChan's "*Fishermen*(어부들)" (1971) and "*Bojegi left at night*(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2000) and Oh, KyungHoon's "*Fishing pier*(어선부두)" (2005).

Main agents of Jeju maritime novels are classified into 'Jeju Haenyeo (female diver)' and 'Bojegi (fisherman in Jeju dialect)'. Jeju Haenyeos are the existences depending on Sea in order to live in the land. Jeju Haenyeos in novels show the life synchronizing with Sea through internalization against Sea. In addition, Bojegis appear in novels as unsophisticated existence overcoming the difficulties based on wisdom of life they have obtained from Jeju Sea.

Recognition of space appearing in Jeju maritime novels can be divided into ‘living space through a sense of community’, ‘space of pray through shamanism’ and ‘space of promotion and transfer of culture’. It is confirmed that Jeju Sea appearing in each novel is the space reflecting particularities of culture and history and it has different patterns from other maritime novels.

Likewise, as a result of analyzing Jeju maritime novels focused on main agents of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spac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maritime novel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First, main agents appearing in the narration of Jeju maritime novels are mostly women unlike maritime novels in other regions. Second, Sea space of Jeju maritime novels is coastal Sea (offshore) as a main stage. Third, Jeju maritime novels faithfully contain culture of Jeju Sea as sub-literature. Ultimately, taken together these features of Jeju maritime novels, it is confirmed that Jeju Sea is penetrated deeply into lives of people in Jeju and Jeju Sea has the Jeju maritime novels which are meaningful and valuable subjec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is the first earnest attempt to fi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Jeju maritime novel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triggers more active discussion about Jeju maritime novels in the future.